백두-한나

주체112(2023) 7
http://www.paekdu-hann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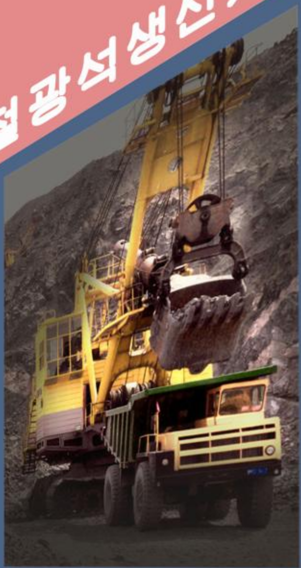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1



철광석생산기지 무산광산련합회기업소







2선광직장에서는 설비보수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공정전반의 기술상태를 개선하여 선광실수률을 높이고있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철산봉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6만산발파를 비롯한 10여차의 발파를 진행하면서 쇠돌증산의 확고한 답보를 마련하였다.

기업소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채광장들에 대형굴착기와 회전식착정기들을 집중배치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파쇄기,벨트콘베아 등 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고 박토처리를 신속히 하면서 시간당,교대당 광물생산량을 늘이고 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ínghuodongxiaoxi

01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05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0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0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0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10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12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진행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15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16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추모행사 진행

17 목단강, 계서 실태 보도문

19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의 그 모습이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20 이것이 우리 조국인민의 모습이다

21 7 월의 그리움

22 심양시 지부장, 본부일군들과 함께 공민병문안

23 최은복의장 생일 80돐을 맞으며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보내온 축하장 전달의식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

24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로전사들과 좌담회 진행

25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27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산하조직들에서 규탄모임. 토론회진행

백두-한나 PAEKDU-HANNA

조국소식
CHAOXIANXIAOXI

28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기념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29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31 신도군 비단섬로동자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32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목표밑에
33 새 방목지에 염소목장이 일떠섰다
33 평성교원대학 준공식 진행
34 인재관리를 방법론있게 하여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35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37 괴뢰 전지역에서 역도퇴진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 확대, 10만여명의 금속로조 성원들 총파업투쟁 전개
38 언론탄압, 언론장악책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발 고조
38 농민단체들 윤석열역도퇴진투쟁 진행
39 북경조선족기업인들 협회 설립 12주년 행사 개최
40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 황고구조선족학교에 전자학습기 기증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42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友好合作互助条约
45 중국대사관 연회 마련
45 공동의 귀중한 재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발전하는 중조관계
46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48 王亚军大使走访平壤和盛地区居民新居

중국소식
zhongguoxiaoxi

49 올해는 가장 더운 한해! 엘니뇨란 대체 무엇일가?
50 오늘은 7.7사변 86주년, 어찌 잊으리!
51 중국세관, 일본 후쿠시마 등 10개 현(도)의 식품 수입 금지
51 自然资源部：严禁通过不动产登记将违法用地合法化
53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将于12月起施行

국제단신
guojiduanxin

상식
changshi

62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전하는 승전비-북관대첩비
63 유모아의 어원과 유래
63 여름철건강상식 몇가지
65 여름방학 나들이할 때 이런 전염병 주의해야!
67 작가 조령출

앞표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축열병식의 서막을 펼치며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진행되였다.

군악대원들이 70년전 전승의 광장에 차넘치던 격정과 환희, 영웅세대의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긍지높은 승전사를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에 담아 펼쳐보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기백넘친 혁명군가속에 일당백강군의 필승의 기개와 전투적랑만을 특색있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로 보여주었다.

이윽하여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 무적강군의 위엄 빛나는 공화국정예무력의 열병부대들이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위훈으로 빛내인 근위부대 군기들과 두 세기에 걸치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의 기상을 떨친 무적의 정예부대 군기들이 열병종대들의 경의를 받으며 광장주로에 도렬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절대적존엄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받게 된 크나큰 격정에 넘쳐 광장주석단을 우러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조선인민군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조선혁명의 명맥에 진함없는 활력을 부어주시고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만대로 이어갈 굳건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전체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 정치위원들, 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병간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대장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와 중국의 외교대표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풍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모범군인들, 렬사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천만의 심장을 애국의 피로 높뛰게 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의 선률에 맞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메달을 형상한 대형이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의 사열을 받으며 광장주로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따라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영웅인민의 기상이며 혁명의 준엄한 폭풍을 뚫고 가장 찬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주체조선의 값높은 존엄과 영예의 징표인 영웅메달이 광채를 뿌리는 가운데 전쟁로병들이 전화의 불비속에서 피로써 지켜온 람홍색공화국기를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에게 정히 넘겨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진격의 선봉에 높이 추켜들었던 불멸의 기치, 강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위상과 기개,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행복이 응축된 성스러운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기를 경건히 우러르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영원한 승리와 정의의 상징으로 빛나는 공화국기가 뜻깊은 7월의 하늘가에 거세차게 나붓기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열병광장은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인 강순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70년전 미제와 추종국가세력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것은 우리 공화국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승리의 력사가 장엄한 힘의 격류로 펼쳐지게 되는 오늘의 열병식이 세계에 있어본적이 없는 독특하고 위력적인 최고의 전승축전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면서 백승불패의 혁명적당과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위대한 우리 인민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쟁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승전사에는 반드시 걸출한 수령과 함께 수령을 목숨바쳐 보위한 참된 혁명가들이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되새겨주며 전화의

그날 최고사령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였던 현철해, 연형묵, 박송봉동지를 비롯한 열혈충신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최영림로병을 위시한 친위중대상징종대가 나아갔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단계별작전들에서 수많은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소멸하고 1211고지방어전투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치며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처넣은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상징종대가 사단장이였던 최현동지와 리수복, 안영애영웅을 비롯하여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서울해방작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우고 오산격전에서 미제침략군의 선견대인 《스미스특공대》를 박멸했으며 대전해방작전에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진격의 화살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세상에 명성떨친 용감한 싸움군부대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들의 발걸음도 드높았다.

기동전, 련속타격전의 능수로 소문났던 근위 제6보병사단상징종대와 동부산악의 맹호부대 안동제12보병사단상징종대에서는 《나의 고지》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었던 한계렬영웅과 조순옥, 강호영을 비롯한 육탄영웅들의 불굴의 군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포항의 16용사를 배출한 근위 제10보병련대, 하루밤사이에 백여리를 내달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대전포위를 결속한 날개돋친 호랑이부대인 근위 제18보병련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창검이 되여 최고사령부가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따라 진격의 제일선에서 내달리며 적들을 전률케 한 근위 제14보병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들의 혁혁한 군공을 전하는 군기들을 나붓기며 근위보병련대들의 상징종대가 용진해나갔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지, 기백이 차넘치는 열병광장으로 전쟁의 철화를 헤쳐온 기계화종대들이 기세차게 전진해갔다.

침략의 무리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며 전쟁개시 3일만에 적의 아성으로 남먼저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던 312호땅크를 선두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상징종대가 온 시가를 들끓게 했던 력사의 그날의 격정과 환희를 안고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였다.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수도의 대공방어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전쟁 전기간 640여대의 적비행기를 격추, 격상시키는 전과를 이룩한 근위 고사포병련대들의 상징종대가 금별의 위훈 빛나는 포신들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항일의 혈전길에서 개척되고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수령보위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만 달음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진기상을 안고 명예기병종대가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당중앙결사옹위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있다는 백승의 철학, 불변의 진리를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위엄있게 나아갔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무적의 사단, 려단들의 군기를 자랑높이 나붓기며 전선군단종대들이 멸적의 장검을 비껴든 군단장들의 인솔하에 행진해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절대불변의 계급적각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무자비한 징벌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장구한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온 값높은 위훈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추켜들고 기세충천하여 행진해가는 열병종대들에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열병대원들은 조선인민군을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백전백승의 투지를 만장약한 정의의 억센 주먹으로,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하는 불패의 강군으로 세기에 떠올려주신 희세의 령장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렸다.

전승절의 환희와 경축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상공을 뒤울리며 인민공군의 장쾌한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무기가 부족해 조국의 남해를 지척에 두고 진격을 멈춰야만 했던 전승세대의 피맺힌 한을 가슴후련히 풀며 국토수복의 판가리결전의

선두에서 질풍쳐갈 주력땅크종대와 무자비한 포화로 전선부대들의 진격로를 열어제낄 인민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종대들의 철의 흐름이 열병광장에 노도쳤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종대들이 기세차게 나아갔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적대세력들의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공화국전략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을 이끌고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격정과 환희는 고조를 이루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수 있는 강대한 국가와 인민의 절대적인 힘의 실체,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인 우리 전략무력의 위상을 체현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종대가 영웅발사대차를 선두로 광장주로를 메우며 진군해갔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되여 전승절의 밤하늘에 끝없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전면적부흥발전을 가속화하며 반제반미성전에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대정치군사축전으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강대한 조선의 힘이시고 존엄이시며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전쟁로병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수일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로씨야련방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보고대회에는 위대한 영웅시대의 주인공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풍열성자들, 공로자,로력혁신자, 렬사들의 자손들,청년건설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연설하였다.

갓 창건된 주권국가와 백수십년의 침략전쟁력사를 가지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대결은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였지만 우리 국가와 인민은 시대와 력사가 부여한 자기의 책임과 사명앞에 용감하게 나섰으며 힘있게 일떠서서 제국주의전쟁광들의 침략공세를

좌절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승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미제와 견결히 맞서 싸워 자주와 정의를 지키는 동방의 보루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으며 존엄높은 우리의 국호와 국기는 영웅성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기치로 누리에 빛나게 되였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적의의와 심원한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나는 전승의 력사적의의는 가장 준엄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영웅적투쟁사를 개척하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전통으로, 우리 국가발전의 성격으로 굳혀놓은데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희생적으로 전쟁승리에 기여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우리 군대와 한전호에서 싸우면서 견결한 반제혁명정신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 혁명적단결로써 승리하는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세운 전투적공훈과 력사적공적을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명절을 축하하여 평양에 온 친선적린방인 로씨야련방의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대장동지를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기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위협하고 해치는 무리들을 타승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싸움에 떨쳐나선 로씨야정부와 군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전투적경의를 보내였다.

그는 패권과 팽창을 추구하여 행성의 곳곳에서 류혈적인 대결과 정변, 전쟁을 조작하고 부추기며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며 해치려는 지배주의세력과 강권행위가 존재하는한 그 어느 나라와 지역도 안전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인민은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과 한전호에서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보고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축하연설을 로씨야련방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동지가 대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대회참가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온 뿌찐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로써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전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우리 조국을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일떠세울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외무상 최선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참전하여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여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반제반미투쟁을 영웅적인 희생으로 지지성원하며 전쟁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의 아들딸들의 숭고한 넋과 정신은 사회주의리념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귀감으로 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은 자기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보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였으며 평화애호력량과 진보적인류를 대표하여 제국주의지배세력에 맞서 싸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이였다고 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기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고귀한 삶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혈연의 뉴대를 맺고 정의와 진리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과감히 짓부셔나가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후세토록 굳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단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가 조중공동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주고 훌륭한 축원이 담긴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하시면서 우리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고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

화국정부, 전체 중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한전호에서 희생적으로 싸우면서 견결한 반제혁명정신과 혁명적단결로써 승리를 이룩하는 훌륭한 전통을 마련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전투적위훈과 력사적공헌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으며 또한 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형제적인 중국당과 인민이 습근평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담화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립장이 재확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대표단 성원들을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외무상 최선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여정동지와 리홍충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따뜻한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쎄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쇼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쇼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쇼이구 국방상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뿌리깊은 조로친선의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전투적우의의 감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담화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쇼이구 국방상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로씨야련방 국방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기념하여 자신께서 마련하신 기념품을 쇼이구 국방상에게 선물하시였다.

중요한 계기에 이루어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쎄르게이 쇼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사이의 상봉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국방안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 단행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강화의 일환으로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전례없이 가증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형세가 랭전시대를 초월하는 핵위기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판단과 중대결심에 따라 진행되였다.

지난 4월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워싱톤선언》을 조작해낸 미국은 미일남조선 《3자핵동맹》의 모체로 될 미국남조선《핵협의그루빠》회의를 통하여 공공연히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핵무기사용을 모의하려고 획책하고있으며 미전략자산의 《가시성》증대의 미명하에 핵추진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시로 출몰시키면서 지역정세를 사상초유의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극히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핵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련쇄핵위기를 몰아올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적인 대결기도가 더이상 허용할수 없는 림계점에 근접한 현정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물리적힘으로 억제하고 자기스스로를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자위력강화, 자위적핵전쟁억제력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경고로도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무기체계의 기술적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재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여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김정식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온 행성을 뒤흔들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전략무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폭음이 터져오르고 거대한 동체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무기체계는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굳건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힘있게 과시한 오늘의 이 사변적인 성과는 공화국전략무력발전에서 또 한번의 중요한 진일보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안전환경이 각일각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불안정한 현정세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전쟁억제력강화로선관철에 더욱 강도높이 매진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것이라고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도전들이 가증될수록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행로에는 보다 놀라운 사변들만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된다는것이 공인된 법칙이라고,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핵전략무력강화를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국방과학부문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뜻깊은 전승절 70돐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써 영원한 승리의 력사를 시대와 미래앞에 기약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끝)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승리의 거대한 봉우리로 솟아 영웅성과 정의의 상징으로 빛나는 전승 70돐을 청사에 특기할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7월 27일 0시 경축대공연이 진행되였다.

동방일각에 일떠선 첫 인민의 나라, 신생공화국이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제국주의괴수인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한 력사의 7.27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만 5,568일의 장구한 나날 전승의 3년과 그 승리를 지킨 불굴의 70년이 주는 값비싼 명예와 존엄을 안고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의 명절인 전승절을 의의깊게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로 공연장소는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람에 앞서 위대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고 친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동지는 전승절을 맞으며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

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홍충동지에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조중인민의 공동의 명절을 경축하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7.27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습근평동지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준것은 조중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을 안아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숭고한 정신과 넋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형제적중국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인민과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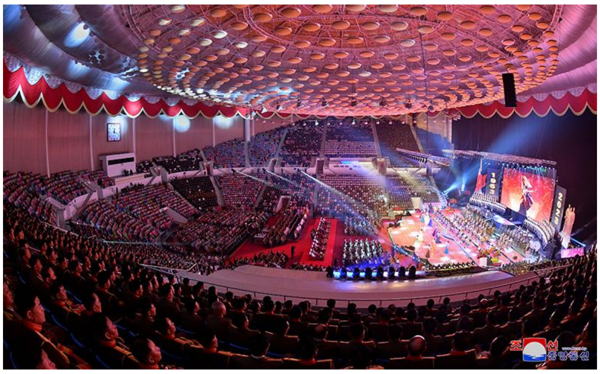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 대표단 단장들과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올리였다.

또한 대표단 단장들에게 친선의 정이 어린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비롯한 경축행사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대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국무위원회연주단, 왕재산예술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들과 사회와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예술인,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서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메아리친 신념의 노래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제의 오만성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폭제를 징벌하는 백절불굴의 정신과 무비의 힘을 지닌 최강자들로 키우시고 인류가 경탄하는 기적의 전승사를 창조하시여 반제자주, 민족해방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고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화면에 모셔지고 친근하신 음성이 만장을 울리자 관람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준엄한 반제반미성전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시여 조국의 운명과 인류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싸우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퍼졌던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이 전설적인 년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삶과 죽음, 피와 눈물, 사랑과 증오로 이어진 전쟁의 3년간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를 뚫고 육박해간 무수한 진군길, 원쑤격멸의 백병전과 승리를 믿어 아낌없이 바친 애국의 열과 정이 뜨겁게 맥박치는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영웅적군민이 떠올린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성이 얼마나 준엄한 결사항전의 산아인가를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평양을 찾은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중국노래련곡과 로씨야노래련곡이 울리자 장내는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친선단결의 력사와 전통이 세기와 더불어 줄기차게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과 우애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공연은 종곡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 《우리의 7.27》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끝)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을 안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서거 29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있습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은 조국인민들과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는 날이며 그이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다시금 새롭게 다지는 날입니다.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과 근로하는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인민이 참된 주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국력과 인민의 참된 삶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는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탁월하고 천재적인 령군술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그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전후 세상이 경탄한 《천리마속도》를 창조하시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제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특출한 령도력과 뜨거운 인품,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민족의 해방과 조국통일, 인류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주석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수령님들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계를 휩쓸며 기승을 부리던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신화적인 기적이 창조되고 조국땅 방

방곡곡마다에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인민들의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모습은 세인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견인불발의 투쟁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경이적인 변혁적실체의 창조로 위대한 주석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공화국의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리 인민은 긍지높은 인민으로 자랑 떨치고있습니다.

강대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재중동포 우리들은 조선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페부로 느끼고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해외에서 살고있는 공민들을 위하여 조직을 무어주고 해외공민들을 따뜻이 안아보살펴주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화국창건 75돐과 전승 7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력사가 깃들어있는 중국 동북땅에서 살고있다는 남다른 긍지를 간직하고있는 재중동포 우리들은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조중친선의 영원한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12(2023)년 7월 8일
중국 심양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9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 조직들이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길림육문중학교,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대표부,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영상작품에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

지구협회, 베이징시지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9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편지 채택모임이 8일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학습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중남지구협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80여성상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애국, 애족, 애민으로 빛나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였다고 격찬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계에 떨칠수 있게 하여주신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그들은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력사가 빛나는 우리 조국은 무궁토록 강대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하였다.



-중남지구협회-



-단동시지부-

목단강지구협회 산하지부들에 대한 실태료해사업 진행

목단강지구협회 담당 김연주국장

총련합회일군들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목단강지구협회산하계서시,밀산시,계동현,해림시에 대한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심양주재조선총령사관 담당령사, 해외동포사업국 일군, 총련합회사무국 동주봉국국장 , 지구협회 담당 김연주국장 등 4명이 이번 실태료해사업에 참가하였다.

12일 우리 일행은 심양 - 계서행 렬차에 올랐다.

이번 실태료해사업에 동행하기 위해 목단

강지구협회 남초월회장, 김영일부회장, 김영희사무장이 우리 일행과 함께 계서시서역에 도착하였다.

역에는 계서시 외사반공실 반과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정명희지부장, 림명순전지부장 가족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12일부터 6일까지 계서시,계동현,밀산시,해림시공민들과의 모임에서 공민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해외공민들을 찾아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다.

공민들을 만나 실태료해를 하면서 담당령사동지와 총련합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력사적서한 기본정신을 공민들에게 상세히 해설해주고 최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진행하고있는 애국사업진행정형을 알려주면서 산하 조직일군들은 직접 공민들과 상대하고있는 일군으로서 동포제일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공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밀산시 공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하였다.모임에서 특히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우리 일행은 실태료해사업 전기간 계서시 최봉화공민(93세), 신춘영공민(84세), 밀산시리광일지부장(80살),녕안시 리보배전지부장(92살),해림시 김영일지부장,총련합회최청산전부의장 아들 등 공민들과 일군들의 가정방문을 하면서 생활형편도 알아보고 회포도 나누면서 총련합회에서 보내준 보조금을 전해주며 조직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료해 사업에 주재국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돌려주었다.

이번 실태료해 전기간 계서시 인민정부에서 두차레 만남과 초대를하였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계서시,밀산시,계동현정부의 열정적인 환대를 받았다.더우기 14일 오전 계서시정부에서는 계서시인민정부비서장,밀산시부시장,계동현부현장,민정국,외사판공실일군 등 11명을 우리 일행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청취하게하고 해결방도를 찾도록 해당 부서들에 지시를 하는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목단강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에서도 우리 일행을 초대를 하였다.목단강시 외사반공실 윤경헌부주임일행은 우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2022년11월 목단강시와 녕안시지부 실태료에 심양총령사관에서 제기한 공민들이 걸린 문제해결정황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령사동지는 주재국에서 우리 공민들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고 이반에 해림시지부 실태료에



주재국 일군들과의 면담

정황을 이야기하며 목단강시 외사반공실에서 마련한 초대받고 앞으로 만남을 약속하며 헤여지였다.

15일 우리 일행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경박호를 답사하였다.

이번 목단강지구협회 산하 지부들에 대한 실태료해를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서한 관철을 위하여 심양주재 우리나라총령사관의 적극적인협조로 하여 가는 곳마다 주재국 일군들이 조선 해외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공민들이 걸린 많은 문제들이 멀지않는 앞날에 해결되리라는 신심을 가지며 16일 심양으로 돌아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의 그 모습이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우리 해외공민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뜨겁게 안아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주석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독창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사상과 령도,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과정에 우리 재중동포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고 온갖 육친적사랑을 다 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위하는 친어버이의 정으로 우리 해외공민들에게 온갖 뜨거운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십니다.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한없는 사랑속에 살아온 우리 해외공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오직 원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는 길에 우리들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더욱 억세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과 몇년째 지속되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적성과를 안아오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고있습니다.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심장깊이 새기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은 우리모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주체112(2023)년 7월 8일



이것이 우리 조국인민의 모습이다

김영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상대방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는듯 아닌보살하는것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이 일으킨 1950년 조선전쟁이 바로 그렇다.

조선전쟁도발의 방법과 절차, 날자까지 확정한 미국은 불의성을 보장하며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전쟁도발날자를 6월 25일로 정한것만 보아도 미국의 교활한 음모를 잘 알수 있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였던 로버트는 6월 25일을 전쟁도발날자로 정하게 된 리유에 대하여 《그리스도교국가인 우리가 안식일인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고 떠벌이였다.

조선전쟁방화의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 역시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였다.》고 실토하면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죄악을 자인하였다.

그처럼 교활하게, 그처럼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부으며 전 조선을 타고 앉으려고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패배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와 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기개앞에서 미국은 패배의 흰기를 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새 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고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괴뢰들과 남조선에서 핵동력항공모함 《니 미쯔》호가 참가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대규모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사상최대규모의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비롯하여 력대 최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있다.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는 미국과 괴뢰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은 6. 25전쟁전야를 훨씬 릉가하고있다.

허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보병총으로 원자탄과 맞서야 했던 지난 6. 25때의 그런 청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조국의 혁명무력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발전되였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조국인민의 증오와 복수심은 백배해졌다.

보라.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조국땅 그 어디서나 진행된 군중집회장들을!

이것이 바로 지나간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멸적의 신념과 대적의지로 불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이역에 사는 저로서 7 월에 들어서면 항상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평생 이민위천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혁명신조로 삼으시고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시면서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수령님이시다.

《인민》이라는 두 글자우에 자신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얹으시고 끝없는 애민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본다.

우리 나라의 국호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어 인민공화국, 군대의 이름도 인민군대, 문화궁전도 인민문화궁전, 병원도 인민병원, 사회와 집단앞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도 인민과학자, 인민예술가, 인민체육인, 인민기자, 인민배우…

인민과 결부된 이름, 바로 여기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신 수령님의 인민관이 반영되여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한편생을 바쳐오신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겨레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7 월의 그리움

상지시지부장 김승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갈라져 사는 민족의 아픔을 한몸에 안으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친필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에 남기시였다.

진정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그런 위인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하기에 저는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그 길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되새겨져 마음이 심쿵해진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수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지 벌써 29년이 되였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인민들은 수령님을 못 잊어 금수산태양궁전에 고이 모시고 추모하고있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수령님의 자취가 깃들어있다.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다하시던 우리 수령님이시다. 수령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원수님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실것이다.



심양시 지부장, 본부 일군들과 함께 공민병문안

총련합회 문화국 국장 김연주

심양시 지부 장춘옥선생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심양시 김경미지부장은 7월 3일 총련합회 김연주국장, 권헌부국장과 함께 장춘옥공민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문안을 하였다.

심양시지부활동을 진행할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던 장춘옥공민은 몇년전부터 몸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치료해보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얼마전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위암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하였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서니 침대에 누워있던 장춘옥공민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였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외국에 있어 곁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병실에서 쓸쓸하게 지내던 장춘옥공민은 너무도 좋아 어쩔줄 몰라 우리를 앉으라고 거듭 권고하였다.

우리는 장춘옥공민의 병세에 대해 료해하였다.

다행이도 그는 크게 실망하지 않고 락관적 태도로 퇴원하여 항암지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서 지부장과 본부 일군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자기와 같은 평범한 공민을 찾아준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위문품을 환자손에 쥐여 주면서 잘 치료받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서 심양시 로공민 리준경선생의 집을 찾아 병문안을 하였다.

년세가 많은 리준경선생은 얼마전 넘어진 후유증으로 말도 행동도 몹시 꿈떠보였다.

리준경선생은 지부장과 본부 일군들이 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먼곳에서 살고있는 자기 집을 찾아준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리준경선생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료해하면서 조국의 주요계기 때마다 재중총련사업에 보태쓰라고 돈을 기부한데 대해 총련합회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리준경선생은 106살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

년세많은 분들이 살고있는 집이지만 보모가 있어 널찍한 거실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여 있었고 꽃들도 푸르싱싱하여 집안이 환하였다.

우리는 리준경선생이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 공민들중에서 년세가 제일 많은 어머님을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고 준비한 위문품을 넘겨주면서 항상 건강에 류의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그의 집을 나섰다.

최은복의장 생일 80돐을 맞으며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보내온 축하장 전달의식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 생일 80돐을 맞으며 7월 19일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보내온 축하장 전달의식을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전달의식에는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 구영혁총령사동지와 담당령사동지, 최은복의장, 차상보부의장, 리순남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비전임일군들, 경제인련합회 김경수부회장이 참가하였다.

먼저 구영혁총령사동지가 최은복의장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은복의장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하였다는 소식을 전달하자 장내에는 최은복의장을 축하하는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계속하여 구영혁총령사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보내온 축하장을 랑독하였다. 축하장은 최은복의장이 지난기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동포군중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면서 의장동지가 로당익장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의장동지의 귀체건강과 온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하였다.

이어 최은복의장이 답사를 하였다. 그는 한 평범한 해외동포에게 값높은 <**김정일**훈장>을 수여하여준 조국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숭고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내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영원한 동지로 함께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심양주재 총령사관은 심양모란관식당에서 최은복의장 생일 80돐 축하연을 마련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항상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배려에 보답해나갈 결의를 다지면서 최은복의장의 건강과 행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에 즈음하여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명의로,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

인녀성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주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명의로,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 태양상초상화에 중남지구협회 명의로,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 태양상초상화에 단동시지부 명의로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좌담회 진행

좌담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동지를 비롯한 본부 일군들과, 중앙상임위원들,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이 참석하였다.

최은복의장이 전승 70 돐을 맞으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중남지구협회 백경헌회장이 <제일 강한 군대>라는 제목으로, 지원군로병 김동휘동지가 <위대한 항미원조 보가위국 전승 70 돐 경축>라는 제목으로, 지원군로병 김룡빈동지가 < 나의 경력과 느낌> 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





총련합회 권헌부국장이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

끝으로 전쟁로병들이 존경과 보살핌속에 건강장수하기를 축원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 경축보고회가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비전임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원들, 료녕지구협회 산하 지부장들, 심양시지부공민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표성룡회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과 지원군로병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 회의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모든 부문, 모든 지역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쟁이였다면서 창건된지 2 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이 근 200 년간 110 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승리한 미제와의 가렬한 전쟁이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조선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침략자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수호함으로써 력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였다고 격찬하면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판가리싸움에 중국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지원군을 파견하여 우리 조국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피력하였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오늘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는 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되여 자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면서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한 미국이 기어코 새전쟁을 도발한다면 조선인민은 미국과 총결산을 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끝으로 보고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재중공민들은 불행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륭성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해외에 살고있지만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처럼 조국의 부흥강국건설에 애국애족의 마음을 바쳐나가자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래일을 위하여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을 경축하여 경축공연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노래한 추억을 불러오는 전시가요와 전승찬가들은 높은 예술적기량과 다채로운 절목으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조중친선의 노래로 지원군로병들과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이 되면서 장내는 전승의 열기로 들끓었다. 전승 70 돐경축연회가 모란관식당에서 진행되였다.













목단강지구협회에서 규탄모임 진행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목단강지구협회 규탄모임이 15일 목단강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남초월회장을 비롯한 협회일군들과 산하 지부장,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백년숙적 미제살인마들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전쟁은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으며 인류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륙전쟁이였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미제는 오늘까지도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미제가 1950년대의 쓰라린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드리려 한다면 더욱 쓰디쓴 참패를 면치못할것이라고 언급히였다.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일군들 토론회 진행

6. 25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일군들이 7월 5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 한성옥회장은 우리 국가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장장 70여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쌓아온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미제국주의와의 총결산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세대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백년숙적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안길것이며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들은 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하는 길에 한몫할것이라고 결의들을 다지였다.

6.25를 맞으며 장백현지부에서 토론회 진행

6.25을 맞으며 장백현지부에서 6월 25일에 지부활동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 량해자지부장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발악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가장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으로 격파분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전진도약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속에 6.25을 맞는 이시각 이 조국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미제의 만고죄악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전쟁광기가 날이 감에 따라 조선반도는 더욱더 엄중한 지경에로 치닫고있으며 모든 군사훈련들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한 실동훈련, 전쟁연습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망동으로 인해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가열시키는 극악한 전쟁불망종, 추악한 전쟁하수인임을 다시금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류례없이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련대련합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앞장서 열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괴뢰역도가 미국, 일본 당국과 결탁하여 진행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폭로하는 활동을 벌리는 동시에 광범한 민족력량을 결집시켜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련대련합운동에 떨쳐 나서 평화, 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데 이바지할 결의들을 다지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7. 27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승세대에 뜨거운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영용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원쑤격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무비의 희생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를 피로써 사수하고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은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변함없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혁명의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온 전승세대의 공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으며 혁명의 년대들을 충성과 애국으로 수놓아온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9, 296명에게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메달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발악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가장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으로 격파분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전진도약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격앙된 멸적의 투지를 안고 6. 25를 맞이하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견결한 대적의지를 백배, 천배로 만장약하며 조국수호의 억센 보검을 벼려온 우리 인민은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의 희열에 넘쳐있던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미제의 만고죄악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격렬한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이 행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정의와 평화의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야망과 본성을 세세년년 되새겨주는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가 25일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12만여명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여온 집회장소들에는 청소한 우리 국가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장장 70여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쌓아온 미제국주의에 대한 서리발치는 증오와 보복의지가 차고넘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박태성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내각 부총리 전승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동지, 근로단체,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동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리용근동지, 락랑구역 금대농장 경리 허춘금동지,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주혁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에 의하여 참혹한 전쟁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6월 25일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가실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힘이 강하였더라면 6. 25와 같은 천추의 한은 없었을것이며 조국강토가 무고한 선혈로 물젖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라는 력사의 이 물음에 바로 70여년전의 피맺힌 일요일이 대답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총대가 강해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을 받들어 미제를 징벌할 최강의 절대병기,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











게 할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억척같이 틀어쥐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원자탄사용까지 공언하였던 미제가 오늘도 민족의 극악한 원쑤인 괴뢰역적패당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부추기며 군사적대결과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침략자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락인하였다.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금도,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침략전쟁도발에 환장이 된 미제는 복수의 의지로 무섭게 달아오른 이 땅의 열기가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향해 폭풍쳐가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투철한 주적관, 반미계급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민간무력의 싸움준비,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일 미제국주의와의 총결산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세대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불굴의 대적의지로 만장약한 이 땅의 복수자들은 단호한 보복성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박멸을 선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년숙적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오르는 복수의 열기를 분출시키는 구호들과 원쑤격멸의 함성이 6월의 하늘가를 진감하였다.

이어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반공화국압살의 개꿈을 버리지 못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일삼고있는 미제와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멸적의 구호로 터치며 행진해나아갔다.

적들이 신성한 내 조국의 0.001㎜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전민항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세기를 두고 쌓이고쌓인 분노와 증오의 폭발로, 다지고다져온 공화국의 불가항력으로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을 무자비하게 들부셔버릴 의지가 격류되여 굽이쳤다.

시위대오마다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 매진분투함으로써 전면적국가부흥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혁명적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였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는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한 혁명신념과 억센 투지로 노도와 같이 진군하여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갈 수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신도군 비단섬로동자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위대한 로동당세월과 더불어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이 조국의 서북단 섬마을에도 펼쳐져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인민이 당한 불행을 제일 큰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의 재난을 당한 신도군 비단섬로동자구의 주민들에게 살림집부터 마련해주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부엌세간과 땔감을 마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열화같은 정으로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아래 재난의 터전우에 누구나 부러워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최단기간내에 훌륭히 일떠서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살림집입사모임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철우동지,관계부문 일군들,건설자들,살림집에 입사할 주민들과 신도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철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어머니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희한한 살림집들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조국땅 서해 한끝의 섬마을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며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섬주민들에게 각별한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인민들의 얼굴에 비낀 그늘을 하루빨리 가셔주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인민군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새 선경마을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신도군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탁월한 사상과 령도,한없이 고매한 인덕으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 실제적인 성과,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감으로써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으며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국땅우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근로하는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의 친어버이이시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당에서 마련해준 살림집들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고 더 잘 꾸려 신도군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보다 훌륭히 전변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소중히 새겨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투쟁본때를 더욱 힘있게 떨쳐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온 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되였다.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어쩔줄 몰라하는 집주인들을 일군들이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희한한 새 집을 지어주고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살림조건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해 다심한 정을 기울인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섬마을주민들은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로동당만세를 웨치고 또 웨쳤다.

비단섬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품이 있어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우리 인민은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목표밑에

함경남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과 함께 농기계들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얼마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함흥시의 한 농장에서 도적인 농기계품평회를 조직하였다.

품평회의 목적은 밀보리파종기와 진펄논에서 리용할수 있는 종합토양관리기계, 들춰갈이보습을 비롯한 농기계생산을 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자는데 있었다.

품평회에서는 금야군, 함흥시, 정평군에서 내놓은 진펄논에서 리용할수 있는 종합토양관리기계와 들춰갈이보습 등 여러 농기계가 능률적이며 효률적인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이 농기계들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고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 생산을 늘이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 군들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



적열의를 발동하여 그들이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창안제작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금야군농기계작업소와 함흥시농기계작업소에서 능률적인 농기계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농기계작업소의 기술력량강화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는 정평군에서는 소형벼수확기생산을 늘이고있다.

고원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에서는 여러 계기에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편향적인 문제들을 총화대책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경철



새 방목지에 염소목장이 일떠섰다

삭주군에서

삭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육아정책을 높이 받들고 방목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능력이 큰 염소목장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군에서는 젖제품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염소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방목지를 찾아낸 군의 일군들은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고 염소목장건설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또한 창성양사육장과 신의주청년염소목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여 좋은 경험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군에서는 목장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였다.

염소목장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사방야계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염소우리와 젖가공실건설 등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어느한 중앙기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방조가 이들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결과 새 방목지에 염소목장이 꾸려지게 되였다.

군에서는 목장이 새로 일떠선데 맞게 염소방목을 활성화하면서 젖제품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젖제품생산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단계의 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성교원대학 준공식 진행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각지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평성교원대학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하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일군들은 교원대학을 시대발전과 교육학적요구를 반영하여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웠으며 건설자들은 선진공법들을 활용하여 건설물의 질과 공사속도를 철저히 보장하였다.

평성시의 녀맹원들과 근로자들도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의 땀을 바쳐 대학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교육자양성기지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도의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유능한 교육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평성교원대학 준공식이 3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동지, 도안의 일군들, 건설자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범동

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평성교원대학의 준공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학의 배치계획안과 설계안, 실내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견인불발의 투지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맡은 대상공사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지방과 농촌의 교원대렬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교수교양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력을 지닌 교원혁명가들로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애국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인재관리를 방법론있게 하여

최근 남신의주체신소에서 인재관리사업을 방법론있게 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언제인가 체신소에서는 이전에는 별로 문제로 되지 않던 어느한 체신설비의 고장원인을 찾지 못해 한동안 애를 먹은적이 있었다. 그때 이곳 일군들은 기술력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체신소에는 약전, 기계장치, 정보기술 등에 밝은 젊고 전도유망한 인재가 있었다.

일군들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현대화실을 새로 꾸리고 그를 실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분야에서 대중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시키였다.

체신소에서는 이들이 체신설비의 현대화, 정상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뿐만아니라 작업반, 분소들에서 인재후비들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사업도 말아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재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품을 들여 해결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기술혁신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면 그 영예를 인재들에게 안겨주었다.

사실 당의 품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배운 인재들이 실지 바라는것은 그 어떤 대가나 물질적보상보다 집단의 사랑과 믿음이다.

하기에 현대화실의 성원들을 비롯한 인재들은 배가로 분발하여 단위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에 심신을 바치였다.

그런 속에 체신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콤퓨터결합에 의한 전자장치들, 변환기, 여러 용도의 부속품 등도 척척 제작하여 체신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최근 미국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돌아가고있다.

최근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을 계속 목격한이후 불안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2017년 조미쌍방사이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가능성,핵전쟁발발가능성까지 거론되고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밝혔으므로 이번에는 미국이 세상에 대고 그처럼 호소하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히고저 한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거듭해온 우리로서는 현 미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없는 대화》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것을 멈춰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가상적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행정부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것이 《CVID》따위에 불과할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이다.

미국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지금 우리와의 협상조건,거래거리가 될수 있는것을 찾아낼수가 있겠는가?

설사 미국이 몇년전 전임자가 공약했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과 같은 낡은 수를 또다시 꺼내들거나 기껏해서 련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전략자산전개중단과 같은 가역적인것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미를 돋구어보자고 접어들 가능성도 예견해볼수 있다.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

미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합동군사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것이다.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요충지로

만드는데는 보름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에는 《테로지원국》모자를 벗겼다가 래일에 가서 다시 씌우는것쯤은 미국정치계에서는 식은죽먹기이다.

결국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는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하다면 그 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리익과 바꿀수 있겠는가?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대화에 왜 우리가 전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지 이제는 미국도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트럼프로부터 바이든에로의 정권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적수들이 어떻게 대조선정책을 연장하고 어떤 단꿈을 꾸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할수 있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그것을 제손바닥처럼 뒤집는것이 바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나 바이든과 같은 그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을 구사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대한민국》과 세계악의 제국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며 압도적인 억제력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완화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중시한다.

오늘 우리앞의 현실은 미국이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때없이 날아드는 핵전략폭격기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는 미국의 공중정탐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공연히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소집과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수역에 진입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이다.

미국은 확장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며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며칠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따름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7일

평 양 (끝)

괴뢰 전지역에서 역도퇴진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 확대, 10만여명의 금속로조 성원들 총파업투쟁 전개






괴뢰 전지역에서 반역자, 전쟁광, 파쑈독재자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있다.

함석헌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검찰권력에 기생하여온 윤석열이 조선반도를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를 급격히 퇴보시켰다고 성토하였다.

윤석열이 일제의 과거 죄악을 무마하고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류를 두둔하며 일본의 대변인역할을 자처하였다, 위험천만한 미국, 일본과의 《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며 북을 《주적》으로 돌리고 《북선제타격》을 떠들고있다, 친미사대분자 리승만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선언문은 단죄하였다.

선언문은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전쟁도발을 위한 실전연습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획책하는 윤석열을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력사의 법정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 윤석열퇴진은 리익이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윤석열역도를 반드시, 끝까지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속에 11일 《초불행동》이 민주로총, 농민회총련맹, 빈민해방실천련대 등 37개 단체로 결성된 《윤석열정권퇴진 운동본부》에 가입한다고 선포하였다.

서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윤석열《정권》이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련이은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도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까지 두둔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자고 하면서 여기에 각계층이 합세할것을 호소하였다.

윤석열역도퇴진을 주요목표로 내세운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이 날로 전지역으로 확대강화되고있는 가운데 12일 금속로조가 전면적인 총파업에 진입하였다.

서울과 울산, 광주, 전라남도, 대구, 대전,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이날 결의집회들에만도 금속로조성원 10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금속로조가 로동, 민생, 민주, 평화 등 모든것을 파괴한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였다.

윤석열《정권》이 출현한 지난 1년동안 로동자, 민중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살아왔다, 이 땅을 위기에 몰아넣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로동자, 국민을 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며 죽음에로 내모는 윤석열《정권》은 살인《정권》이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더는 참을수 없다,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생존권을 위한것이며 민중을 위한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로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금속로조가 항쟁에 나섰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은 윤석열퇴진으로 결속되게 될것이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이날 대학생진보련합, 국민주권련대 등 각계단체들도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은 민생참사, 외교참사, 전쟁위기를 몰아온것도 모자라 제2의 《국정》롱락사태까지 빚어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윤석열《정권》퇴진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고 하면서 성명들은 투쟁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을 다짐하였다.

언론들은 《최근 윤석열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수 없고 거리에서는 윤석열퇴진이라는 결연한 웨침이 터져나왔다.》, 《설령 폭우가 내렸다 해도 길게 이어진 행렬을 막을수 없을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투쟁한다면 파급력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언론탄압, 언론장악책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발 고조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괴뢰패당의 언론탄압, 언론장악책동에 대한 규탄과 비난이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KBS, EBS방송수신료분리징수》, 《MBC에 대한 감사》, 《YTN민영화매각추진》, 《리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임명추진》 등은 《윤석열정부의 명백한 언론장악시도이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방송뿐 아니라 모든 편집물과 홈페지들에 대한 탄압도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연장선에서 로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룡산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방송법시행령개정은 내용적합리성도, 절차적정당성도 없는 위법한 개정이다》, 《윤석열정부는 TBS조례페지, YTN민영화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으로 로골적인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최악의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KBS》, 《EBS》, 《YTN》언론로조들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개정은 윤정권의 뜻대로 방송장악의 출발이 아니라 국민적저항의 시발점이 될것이다.》, 《언론탄압에 나선 윤석열정부가 싸울 대상은 전 국민이 될것이다.》, 《방송이 보수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되는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언론탄압, 언론장악책동에 강력히 맞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민단체들 윤석열역도퇴진 투쟁 진행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 《카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전국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는 안중에도 없다. 인류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농업포기, 농업말살통치만 펼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이 쥐여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 <가짜 주인>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은 퇴행 그자체였다.》, 《리명박, 박근혜가 9년동안 저질렀던 퇴행의 정치를 윤석열정권은 단 1년만에 모두 따라잡았다.》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더는 이대로 살수 없다.》, 《분노한 농민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 전지역에서 퇴진운동을 하겠다.》, 《민주로총이 2주간 총파업으로 퇴진운동을 하고있는데 농민들도 이를 지지하며 윤석열정권퇴진에 함께 앞장서겠다.》, 《<진짜 주인>인 국민이, 로동자와 농민, 빈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윤석열정권을 몰아낼것》이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련맹》 등은 7월 15일 《윤석열정권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여는것을 시작으로 전지역에서 윤석열퇴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북경조선족기업인들 협회 설립 12주년 행사 개최

일전에 '휘황 12년 감사하는 마음'을 슬로건으로 한 중국아주경협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설립 12주년 행사가 북경에서 이틀간 개최



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년의 려정을 회고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목적을 두었다.

회장 강성민은 행사에서 "협회는 향후 3년간의 노력을 들여 지속적인 브랜드화, 국제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관점을 교류하면서 호혜상생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아주경협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의 전신은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로서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여 초대회장 김의진, 제2대 회장 리춘일, 제3대회장 리주확, 제4대 회장 현임 강성민이다.

협회는 지난 시기 개혁개방의 거세찬 물결속에 동북 3성에서 창업의 꿈을 꾸며 수도 북경에 진출한 조선족기업가들로 구성되여 현재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150여명 사회 각 분야의 회원들이 활략하고 있다.



어머니사랑으로 7월의 여름 불태워

16일, 연길그랜드웨딩호텔은 불우이웃과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사랑의 열기로 7월의 여름을 불태웠다.

이날 연변애심어머니협회 제5기 2차 확대회의 및 22차 '사랑나눔' 대회가 연길에서 펼쳐졌다.

'세상을 밝혀가는 등불이 되여 어머니 사랑으로 사회복지와 문화진흥에 기여한다'를 설립취지로 하는 연변애심어머니협회는 이날 47명의 학생에게 인당 1800원의 조학금을, 19명의 장애인에게 인당 2000원의 보조금 총 12만 2600원을 전달했다.

조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모두가 학업에 열심히 매진해온 학생들로서 이들은 앞으로 학업

에 전념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온 선진집단과 개인을 표창,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모금행사를 통해 10만 5877원의 사랑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번 사랑나눔대회는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끌면서 전국애심녀성포럼, 북경애심녀성네트워크, 연변화양실업집단유한회사, 길림천우집단,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등 기업과 단체와 대표들도 참석해 애심을 전달했다.



연변애심어머니협회 최순희 회장은 총화보고에서 "우리 사회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연변애심어머니협회는 어머니 사랑으로 불우이웃과 학생들에게 꾸준히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조화로운 사회발전에 일조할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02년에 설립된 연변애심어머니협회는 지난 20여년동안 지역사회에서 립지를 굳혀오면서 전국 각지의 지회, 후원단체들과 협력하여 불우한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베품을 실천해왔다. 협회는 지난해 연변주민정국과 연변주사회조직관리련합회로부터 우수단체, 빈곤부축선진단위로 선정되였다.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 황고구조선족학교에 전자학습기 기증

[본사소식 윤청 기자] 일전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는 심양시황고구조선족학교를 찾아 전자학습기를 기증했다.

애심회는 '소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리념하에 '초불행동'을 기획하고 십여년간 정기적으로 교육사업을 후원하고 청소년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홍화 교장의 인솔하에 박학근 부리사장과 라순자 제2분부 부장 일행은 학교를 참관하고 학교의 기본정황을 료해했으며 1만여원에 달하는 전자학습기 100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식은 애심회 제2분부 정영찬 부부장의 후원하에 이루어졌다. 기증식에서 일행은 민족교육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하고 계속하여 민족교육을 위해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경시(신교)조선민족문화친목회 리사회 회의 소집

지난 6월 30일 흑룡강성 대경시(신교)조선민족문화친목회(이하 '친목회'로 략칭)는 대경시귀국화교련합회 전임 주석 설어금, 대경시귀국화교련합회 당조서기, 주석 리소홍(李啸红), 대경시위 통전부 1급연구원 림경의(林景义), '흑룡강신문' 총편집 박영만 등 관련단위 하객과 리사회 성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룡담상무회관에서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을 맡은 우재성의 사회하에 리사회 회의를 소집, 거수 표결의 방식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친목회 당지부를 설립했으며 친목회 정관 수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현건이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였고 김정규가 당지부서기로 당선되였으며 현건이 당지부 조직위원, 우재성이 당지부 선전위원으로 당조직을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친목회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2018년 6월 30일에 설립된 친목회는 김정규 초대회장의 령도하에 대경시 조선민족 각 협회단체를 단합하여 건강하고 진취적인 문화오락행사를 활발히 진행했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전승하여 민족의 위상을 향상시켰다. 특히 코로나전염병 발병시 정부의 방역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는 전제하에 방역사업에 일조하여 사회의 찬양을 받았다.

김정규 당지부서기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간 친목회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서 향후 친목회당지부를 잘 이끌어 응집력을 결집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제 사회발전에 더욱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특수수당금 획득자이고 고급교사이며 현재 사카이러(思凯乐)중학교에서 부교장으로 사업하는 친목회 신임회장 현건은 여러분들의 신임과 용기 부여에 감사를 표시하고 나서 당의 령도와 민족정책의 지도하에 하나같이 뭉쳐 정치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이 힘과 마음을 합쳐 적극 지지해 줄것을 부탁했다.

대경시귀국화교련합회 주석 리소홍은 축사를 통해 5년간 친목회를 잘 이끌어 온 김정규 초대회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신임 현견 회장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시했으며 문화친목회는 귀국화교련합회의 중요한 력량, 특수력량, 강대한 력량으로서 향후 새로운 리사회의 공동노력하에 역할이 부단히 증강되고 영향력이 제고될 것을 희망했다.

'흑룡강신문' 박영만 총편집은 축사를 통해 친목회가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향후 새로 구성된 리사회의 령도하에 지역사회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했다.

친목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 민족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명의 타민족을 리사회 위원으로 받아들였다.

정관 수정에서 친목회의 취지에 '네개 의식'을 증강하고 '네개 자신'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하고 정치적 판단력, 리해력, 집행력을 증강한다는 내용과 업무범위에 당건설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민족사업의 전과정에 관통시킨다는 등 내용을 보충 수정했다. 리사회 회의에 이어 창당 102주년을 경축하는 오락활동을 진행했다.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창건 102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꽃바구니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룡남동지가 6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곽업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되였다. (끝)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友好合作互助条约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友好合作互助条约》，简称《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是中华人民共和国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于1961年签署的条约。主要保证了缔约一方在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进行全力军事及其他援助。

《中朝友好互助条约》于1961年7月11日由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周恩来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内阁首相金日成在北京签订 [1] 。同年8月23日，经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批准后，于8月30日经时任中华人民共和国主席刘少奇批准，双方于1961年9月10日在朝鲜首都平壤互换批准书。根据《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第七条的规定，本条约自1961年9月10日起生效。

签订时间
1961年7月11日
签订国家
中国、朝鲜
生效时间
1961年9月10日
有效期
双方就修改或者终止问题达成协议以前一直有效

相关领导人

周恩来，金日成

简　　　　称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签订地点

中国北京

条约全文

中华人民共和国主席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深信，两国之间的友好合作互助关系的发展和加强，不仅符合两国人民的根本利益，而且也符合世界各国人民的利益。为此目的，决定缔结本条约，并各派全权代表如下：

中华人民共和国主席特派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周恩来；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特派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内阁首相金日成。

双方全权代表互相校阅全权证书，认为妥善后，议定下列各条：

第 一 条

缔约双方将继续为维护亚洲和世界的和平和各国人民的安全而尽一切努力。

第 二 条

缔约双方保证共同采取一切措施，防止任何国家对缔约双方的任何一方的侵略。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的或者几个国家联合的武装进攻，因而处于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

第 三 条

缔约双方均不缔结反对缔约双方的任何同盟，并且不参加反对缔约双方的任何集团和任何行动或措施。

第 四 条

缔约双方将继续对两国共同利益有关的一切重大国际问题进行协商。

第 五 条

缔约双方将继续本着互相尊重主权、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的原则和友好合作的精神，在两国的社会主义建设事业中，彼此给予一切可能的经济和技术援助；继续巩固和发展两国的经济、文化和科学技术合作。

第 六 条

缔约双方认为，朝鲜的统一必须在和平民主的基础上实现，而这种解决正符合朝鲜人民的民族利益和维护远东和平的目的。

第 七 条

本条约须经批准，并自互换批准书之日起生效。批准书在平壤互换。

本条约在未经双方就修改或者终止问题达成协议以前，将一直有效。

本条约于一九六一年七月十一日在北京签订，共两份，每份都用中文和朝文写成，两种文本具有同等效力。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全 权 代 表	全 权 代 表
周 恩 来	金 日 成
（签字）	（签字）

条约备注



协议签订现场

本条约在1961年8月30日经中华人民共和国主席批准、1961年8月23日经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批准后生效。

条约正文中没有明确规定有效期结束的时间，在未经双方就修改或终止问题达成协议以前将一直有效。 [6]

条约意义

该条约的缔结，对加强两国团结合作、促进两国关系的发展、维护两国安全和亚洲和平发挥了重要作用。 [2]

纪念活动

2018年7月11日，中国驻朝鲜大使馆临时代办张承刚在使馆举行招待会，纪念《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签署57周年。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副委员长杨亨燮出席招待会 [3] 。

2019年7月11日，朝鲜劳动党中央机关报《劳动新闻》在《朝中友好合作互助条约》签订58周年之际刊发署名文章，强调当前朝中关系正继承历史传统、顺应时代要求不断发展 [4] 。

2021年7月11日，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中央军委主席习近平同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朝鲜武装力量最高司令官金正恩就《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签订60周年互致贺电。 [5]

效力问题

2021年7月12日下午的外交部例行记者会上，有记者向发言人赵立坚提问：此前中朝两国领导人就《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签订60周年互致贺电，请问中方是否已经与朝方续签了该条约。

赵立坚表示，我可以告诉你的是，根据《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规定，该条约在未经双方就修改或终止问题达成协议以前将一直有效 [6] 。

중국대사관 연회 마련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2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동지, 외무성 부상 박명호동지,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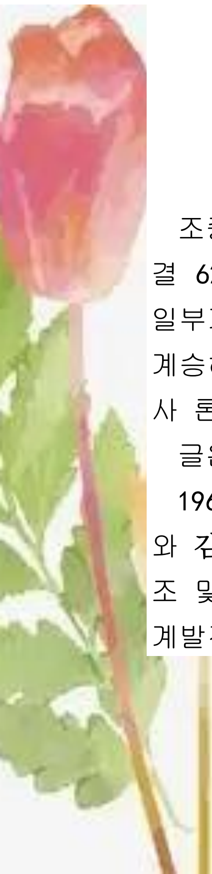
왕아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왕아군대사는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면적인 발전부흥을 힘있게 추진하며 새롭고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계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립장은 변함이 없으며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숭고한 의지를 받들어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윤석동지는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와 진행하신 5차례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활력있게 강화발전시킨 강력한 추동력이였으며 조중친선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조중친선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그는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였다. (끝)



공동의 귀중한 재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발전하는 중조관계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2돐에 즈음하여 중국의 《인민일보》 11일부가 《선린우호로 협조를 촉진하고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향해가자》라는 제목으로 본사 론평원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주은래총리와 **김일성**수상께서 공동서명하신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체결은 중조관계발전을 위한 정치법률적기초를 다지고 두 나라가 전통적인 친선을 계승발양하며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62년간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중조쌍방은 시종일관 조약의 정신에 맞게 서로 지지하며 전략적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친선적래왕과 실질적협조를 심화하여 두 나라의 사회주의위업을 공고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

은 언제나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김정은**총비서께서도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것은 조선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히시였다.

최근년간 중조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은 호상교류와 래왕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선 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인도하고 추동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친선적인 사회주의린방으로서 중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하며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끝)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 진행



조중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와 단결의 력사와 전통을 후세토록 길이 전해가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우의탑의 내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조중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의 내부가 주제사상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보다 훌륭히 개작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전승사에 력력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위훈과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의탑의 내부개작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한 행사가 2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우의탑에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참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동지,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관계부문 일군들, 개작공사에 참가한 해당 단위 성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왕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체류중 중국손님들, 화교들이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도시경영상 임경재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발휘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동지적협조는 국제주의의 산모범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목숨바쳐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력사적공헌은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지원군렬사들과 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조중친선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의하여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승 70돐을 맞으며 우의탑의 내부를 다시 형상할데 대하여 친히 발기하시고 형성안으로부터 새로 형상할 미술작품들과 전시물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개작공사가 훌륭히 완공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왕아군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령도밑에 우의탑의 내부가 일신된데 대하여 중국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상징이며 두 나라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증견자인 우의탑의 내부가 훌륭히 개작됨으로써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을 시대와 함께 부단히 발전시키고 추동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가 과시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갈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공동인식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조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새롭고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였다.

이어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외무성, 도시경영성, 만수대창작사의 명의로 된 화환들,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방부, 퇴역군인사무부,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 등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최룡해동지와 왕아군대사가 우의탑내부앞에 드리워진 붉은 천을 끊었다.

참가자들은 탑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지고 혈연적뉴대로 굳건한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끝)





王亚军大使走访平壤和盛地区居民新居

2023年6月29日，王亚军大使率中国驻朝鲜使馆外交官参观平壤市和盛地区首期万套住宅项目并走访居民新居。朝鲜外务省亚洲一局副局长徐光浩、平壤市外事局局长李善五、和盛地区人民委员会副委员长张锦峰等陪同。

王大使一行听取了朝方人员关于项目规划、建设周期及配套设施等情况的介绍，并先后走进两户朝鲜家庭，同朝鲜同志进行了亲切友好的交流，详细了解了两户家庭生活情况。

王大使表示，在**金正恩**总书记的亲自关心和指导下，和盛地区万套住宅项目在1年时间里拔地而起，不仅住房条件优越，而且周边环境优美、配套设施齐全，这充分体现了金正恩总书记对改善广大劳动者居住条件、提高朝鲜人民生活水平的高度重视。相信在以金正恩总书记为首的朝鲜劳动党领导下，朝鲜社会主义建设事业将不断取得新的更大成就，朝鲜人民的生活将更加幸福美满。



2021年1月召开的朝鲜劳动党第八次代表大会提出首都建设工程，计划2021年至2025年在平壤每年建设一万套、总计五万套住宅，以改善提升当地居民住房水平。2022年松花大街万套住宅建设项目竣工，今年4月和盛地区首期万套住宅项目竣工，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出席竣工仪式并剪彩。目前和盛地区二期万套住宅项目正在建设中。

올해는 가장 더운 한해! 엘니뇨란 대체 무엇일가?

올해 여름 왜 이렇게 더울가? 최근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의 출현을 확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폭염이 재차 습격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엘니뇨란 대체 무엇일가? 올해가 기록이 있은 이래 가장 더운 한해가 될가? 대홍수가 나타날가? 어떻게 극단적인 고온날씨에 대처해야 할가? ↓↓ 과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래의 사진을 소장하고 학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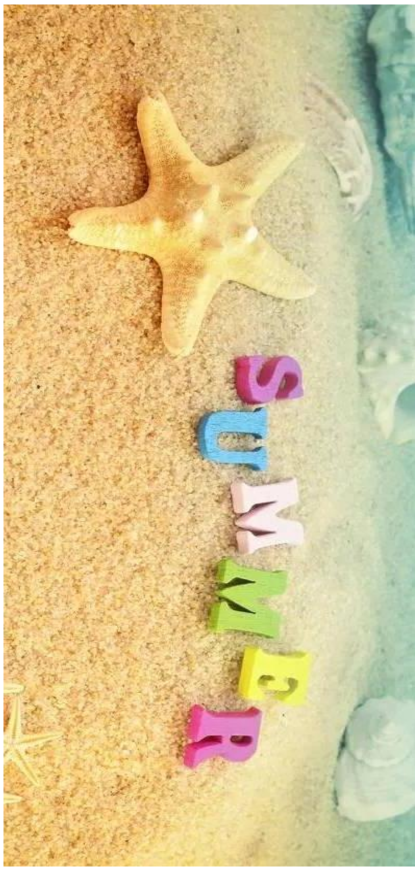
엘니뇨란 무엇인가?

엘니뇨는 사실 기후현상의 일종으로 평균 2~7년마다 한번씩 발생하며 보통 9~12개월 지속된다.

일단 '엘니뇨사건'이 발생하면 적도 중,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다. 원래 비교적 습윤했던 기후는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고 원래 가뭄이였던 기후는 습윤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가 많이 와야 하는 곳은 강수가 줄어들고 가뭄이여야 하는 지역은 강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다.

판별기준에 따르면 주요 지역의 해수온도지수가 0.5° C이상이고 최소 5개월 동안 지속되면 엘니뇨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동력엔진자동차 보유량 4.26억대

공안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6월말까지 전국 동력엔진자동차 보유량은 4.26억대인데 그중 자동차가 3.28억대이고 신에너지자동차가 1620억대이다.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가 5.13억명인데 그중 자동차 운전자가 4.75억명이다. 2023년 상반기 전국 새로 등록한 동력엔진자동차가 1688만대이며 새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1191만명이였다.

상반기 신규등록한 동력엔진자동차가 1688만대이고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1175만대이다. 2023년 상반기 전국 신규등록한 동력엔진자동차는 1688만대로 동기대비 1.9% 성장했다.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1175만대로 동기대비 5.8% 성장했다. 그중 신규등록 승객수송자동차가 1034만대로 동기대비 5.6% 성장했고 신규등록 화물자동차가 133만대로 동기대비 8.1% 성장했다.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이 1620만대에 달했는데 상반기 신규등록량이 312.8만대이다. 6월말까지 전국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은 1620

만대로 자동차 총량의 4.9%를 차지했다. 그중 순전기자동차 보유량이 1259.4만대로 신에너지자동차 총량의 77.8%를 차지했다. 상반기 신규등록한 신에너지자동차는 312.8만대로 동기대비 41.6% 성장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신규등록량은 자동차 신규등록량의 26.6%를 차지했다.

88개 도시 자동차보유량이 100만대를 초과했고 북경, 성도 등 24개 도시가 300만대를 초과했다. 6월말까지 전국 88개 도시의 자동차보유량이 100만대를 초과하여 동기대비 7개 도시가 증가했고 41개 도시가 200만대를 초과했으며 24개 도시가 300만대를 초과했다. 그중 북경, 성도 자동차 보유량은 600만대를 초과했고 중경, 상해, 소주 자동차 보유량은 500만대를 초과했다.

자동차이전등록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중고차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였다. 2023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동력엔진자동차 이전등록업무 1134만건을 취급했다. 그중 자동차이전등록업무가 1057만건으로 동기대비 5.3% 성장했다. 전국 타지역에서 직접 취급한 거래등록 중고소형차가 157만대로 대중들의 일처리에 더욱 잘 편리를 제공해 중고차의 류통을 촉진했다.

래원: 인민넷

오늘은 7.7사변 86주년, 어찌 잊으리!

"로구교에서 사자의 포효소리가 울려퍼지고 완평성에서 피어린 전투가 시작되였다…" 1937년7월7일 밤, 일본군은 중외를 경악하게 한 로구교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고나 아가 아시아를 삼키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망상했다. 침략자의 총포소리는잠자는 민족을 깨우쳤는바 로구교에서 전민족항전의 첫 총소리가 울려퍼졌다.

"전중국 동포들이여! 평진(平津)이 위급하다! 화북이 위급하다! 중화민족이 위급하다! 오직 전민족항전만이 우리의 출로이다!"

중국공산당의 웨침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졌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4억민중들이 단합되여 죽음으로 국토를 지킬것을 맹세했다!"

맹렬한 불길은 광활한 전쟁터에서 타올랐고 정의를 위해 흘린 피와 충혼은 천지에 길이 빛나고있다. 중국은 4억명의 단합으로 세계를 향해 침략자의 기염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결국은멸망할수 밖에 없다는것을 과시했다. 86년의 세월동안 중화민족은 고난속에서 걸어나왔고 고난속에서 일떠섰다.

오늘날 중국은 새로운 력사기점에 서서 새로운 위대한 로정을 시작했다. 거대한 희생을 한 중국인민은 피와 생명으로 쓴 력사를 지키고 쉽지 않게 얻은 력사를 드팀없이 지킬것이다.





어제의 고난과 휘황함을 잊지 말고 오늘의 사명과 담당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래일의위대한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한다.

력사를 명기하고 분발정진하자!

중국세관, 일본 후쿠시마 등 10개 현(도)의 식품 수입 금지

7월 7일 세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관계자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치 종합평가보고와 관련해 기자 질문에 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물질 류출사고 발생이래 중국 세관은 줄곧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입제품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중시해왔고 일본 정부가 취한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부담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때에 대응해왔다.

방사능 오염을 받은 일본산 수입 식품을 방비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세관은 일본 후쿠시마 등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기타 지역의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100% 검사를 엄격히 실시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와 관측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부담이 존재한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방지했다.

중국 세관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방안을 두고 발표한 종합평가보고를 류의했다. 해당 보고는 평가사업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결론은 각측 전문가의 일치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해양방류에서의 일본의 정당성과 정화장치의 믿음성, 관측방안의 완비화 정도 등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당면 일본 핵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였고 일본산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중국세관은 높은 경각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절대적 책임을 원칙으로 삼고 사태 발전에 따라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 중국 소비자 식탁우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중앙인민방송

自然资源部：严禁通过不动产登记将违法用地合法化

来源：央视新闻客户端

今天，自然资源部明确各级自然资源主管部门，要规范有序推进房地一体宅基地确权登记颁证，严禁通过不动产登记将违法用地或违法建设合法化。

自然资源部明确，对违反国土空间规划管控要求建房、城镇居民非法购买宅基地、小产权房等，不得办理登记，严禁通过不动产登记将违法用地或违法建设合法化。

自然资源部要求各地要在已有工作基础上，以行政村为基本单位，统一组织开展地籍调查，查清宅基地及房屋的坐落、界址、面积、权属等，满足房地一体确权登记工作需要。

此外，各地要充分利用地籍调查和确权登记等已有工作成果，对权属合法、登记要件齐全的宅基地及房屋均未登记的，要尽快办理房地一体确权登记颁证；宅基地已登记、房屋未登记的，根据群众需求及时办理房地一体登记，换发房地一体不动产权证书。(总台央视记者 谭振华)

五部门：2023年起不再发放就业报到证

来源：中国新闻网

中新网5月12日电 据人社部网站12日消息，日前，中共中央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教育部、公安部、国务院国资委联合印发《关于做好取消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报到证有关衔接工作的通知》。

《通知》明确，2023年起，不再发放《全国普通高等学校本专科毕业生就业报到证》和《全国毕业研究生就业报到证》(以下统称就业报到证)，取消就业报到证补办、改派手续，不再将就业报到证作为办理高校毕业生招聘录用、落户、档案接收转递等手续的必需材料，并明确一系列衔接措施。一是建立去向登记制度。教育部门建立高校毕业生毕业去向登记制度，作为高校为毕业生办理离校手续的必要环节。二是明确户口迁移要求。高校毕业生户籍可以迁往就业创业地(超大城市按现有规定执行)，也可以迁往入学前户籍所在地。三是明确档案转递衔接。2023年起，组织人事部门和档案管理服务机构在审核和管理人事档案时，就业报到证不再作为必需的存档材料，之前档案材料中的就业报到证应继续保存，缺失的无需补办。四是明确报到入职流程。用人单位可凭劳动(聘用)合同或就业协议书(含网签协议)或普通高等教育学历证书或其他双方约定的证明材料，为高校毕业生办理报到入职手续。五是明确信息查询渠道。用人单位、户籍和档案接收管理部门、公共就业人才服务机构在办理招聘录用、落户、档案接收转递等业务时，可通过查看学历证书、劳动(聘用)合同(就业协议、录用接收函)等，或通过全国高校毕业生毕业去向登记系统(https://dj.ncss.cn)，查询离校时相应毕业去向信息。高校毕业生和有关单位可通过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https://www.chsi.com.cn)查询和验证高校毕业生学历、学位信息。

《通知》要求，各地各有关部门、用人单位和高校要认真梳理调整原涉及就业报到证的办事规则流程并及时公告，进一步精简证明材料，切实做好取消就业报到证有关工作衔接。

专家和您聊聊伏天里的养生食疗

来源：光明网

几天前的六月二十一日，我们迎来二十四节气的第十个节气——夏至。从夏至开始，昼开始变短，夜开始变长，进入炎热季节，天地万物在此时生长最旺盛。俗话说“夏至三庚数头伏”，伏与夏至日有密切关系。也就是从夏至日开始，数到第三个庚的时候就是入伏时间。伏是避暑的意思，入伏以后，气温高、气压低、湿度大，是一年最热的时节，百姓说的“苦夏”就在此时。中医讲，人与自然，天人相应。在夏季自然界阳气最旺盛的时间，尤其注意饮食，不要贪凉，在特殊时节保养好身体达到事半功倍的效果。

北方有句俚语，叫做"头伏饺子二伏面，三伏烙饼摊鸡蛋"。这是什么意思呢？其实面食在中国，有着悠久的历史。东汉的“煮饼”、魏晋的“汤饼”都是面条最初的叫法。南朝《荆楚岁时记》记载“六月伏日食汤饼，名为辟恶”。面条既属经济饱肚的主食，还是登大雅之堂的上佳美食。

在伏天时候，不少人会按照头伏饺子二伏面这个说法吃。三伏天吃对了，身体会更健康，减少疾病入侵。

头伏之所以吃饺子，是因为每逢伏天，人的胃口就不好，吃不下东西，而饺子在中国人的传统习俗里正是开胃解馋的食物。饺子馅一般都剁得很精细，容易消化。一碗热乎乎的饺子，能发汗，祛除盛夏“毒火”，减少体力的消耗。饺子形似元宝，有 “元宝藏福”的寓意，且“伏”与“福”谐音。所以，人们在“头伏”吃饺子，希望能平安度夏。此外头伏之所以要吃饺子，和过去人们生活习惯有关。入伏前一个月正是刚收割小麦，家里面粉比较充足，此时吃饺子改善一下生活。在制作饺子的时候，可以选择肉馅的，不过素馅的更好一点，菌菇、莴笋等做成的馅料，口味更为清淡一些，易消化，吃起来却比较香，伏天时候更为适合。少吃油腻和辛辣食物，少饮酒、少抽烟。

为什么二伏吃热面？二伏面是说在中伏时候，吃点面食。这是因为进入二伏，天气更热，身体流汗多，更容易感到虚弱疲乏。因此可适当多吃点面食，让身体及时补充能量及营养物质。伏天除了喝热汤面，还可以吃过水面。将煮好的面条用凉水过出，拌上蒜泥，浇上卤子，不仅刺激食欲，而且“败心火”。六月吃汤面，发汗可以驱病，还是有科学道理的。用新小麦磨成面粉煮汤吃，新粮营养丰富，吃后出一身汗，发汗不仅可以散热，还可以驱病，去除体内的潮气和暑气，令身体轻松。

到了三伏就已经是秋天了，吃饼和鸡蛋可以补充营养，一方面也是要送走伏天的意思。所以这“头伏饺子二伏面，三伏烙饼摊鸡蛋……”就流传下来了。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将于12月起施行

来源：人民网－人民日报

本报北京7月12日电（记者林丽鹂）为进一步规范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工作，加强食品经营安全监督管理，落实食品经营者主体责任，市场监管总局12日发布《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自2023年12月1日起施行。

办法聚焦企业反映的堵点难点问题，对拍黄瓜、泡茶等简单食品制售行为，作出了简化许可的规定。食品经营者从事解冻、简单加热、冲调、组合、摆盘、洗切等食品安全风险较低的简单制售的，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在保证食品安全的前提下，可以适当简化设备设施、专门区域等审查内容。

办法明确食品销售连锁管理、餐饮服务连锁管理、餐饮服务管理、半成品定义，规定半成品制售仅限中央厨房申请，进一步规范了“散装食品”的定义，明确未经食品生产者预先定量包装或制作在包装材料、容器中的食品，食品销售者在经营场所根据需要对食品生产者生产的食品进行拆包销售或进行重新包装后销售的食品，均纳入“散装食品”的范畴。

办法结合行业发展、食品安全风险状况等，进一步明晰办理食品经营许可的范围和无需取得食品经营许可的具体情形，将实践中容易导致责任落空且有迫切监管需要的连锁总部、餐饮服务管理等纳入经营许可范围，并从风险管控角度，增加并细化了单位食堂承包经营者、食品展销会举办者等的食品安全主体责任。



전쟁죄악으로 가득찬 미국의 피묻은 력사를 파헤친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지도 어언 73년이 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은 침략과 략탈은 미제의 본성이고 기본존재방식이며 야수성이야말로 미제의 고유한 속성이라는것을 명백히 드러내놓은 계기로 되였다.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국제정치연구학회는 크고작은 류혈전쟁과 무력충돌을 일으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지구촌을 전란과 도탄에 빠뜨린 날강도 미제국주의의 피로 얼룩진 침략전쟁사를 발가놓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침략과 전쟁으로 생겨나고 비대해진 미국

미국이 근 250년의 력사중 225년동안 전쟁을 진행하였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18세기 후반기 치떨리는 인디안살륙의 피바다우에 자기의 추악한 존재를 드러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력사는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하고 횡포한 침략과 략탈의 피비린내나는 력사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지역 원주민이며 주인인 인디안들이 세운것이 아니라 주로 앵글로색손족이 침입하여 인디안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세운 나라이다.

앵글로색손족식민주의자들은 북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영국본토의 통치배들과 쟁탈전을 벌린 끝에 1776년에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앵글로색손족이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안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고 《독립》을 선포할 당시 미국의 령토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미국식민주의자들은 《아메리카》라는 옹근 한개 대륙의 명칭과 《합중국》이라는 총칭을 저들의 국호에 아무 꺼리낌없이 뻐젓이 쪼아박았다.

이렇게 벌써 국호를 제정할 때부터 미국식민주의자들은 앞으로 아메리카대륙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팽창주의 야망과 침략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력사에는 미국처럼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국가를 세운 실례들이 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기여든 앵글로색손족식민주의자들처럼 합법적으로 원주민 인디안의 머리가죽에 상금까지 걸고 야만적인 살륙을 조장시킨 실례, 인종멸살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단종까지 강요하면서 원주민의 씨를 말리운 실례는 인류력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미국을 《제노사이드의 모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인디안멸종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국가권력과 정규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인종멸살을 집요하고 잔인하게 감행한 력사상 첫 나라이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독립》을 선포한 첫날부터 령토팽창을 위한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친것도 이 세상에서 유독 미국뿐이다.

미국은 독립을 선포한 1776년부터 1783년까지의 기간에 영국과의 전쟁을 벌려 미씨씨피강 동쪽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1803년에는 록키산줄기의 동부지역인 루이지아나를 헐값에 프랑스로부터 떼여냈다.

1819년에는 에스빠냐식민지였던 플로리다주를, 1845년에는 메히꼬령토였던 텍사스주를, 1846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레곤지방을 강탈하였으며 1848년에는 메히꼬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 250만㎢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자기의 령토로 만들었다.

결과 독립선포후 77년만인 1853년에 이르러 미국령토는 13개 주로부터 48개 주로 늘어났으며 그후 1867년에 미국은 짜리로씨야의 재정위기를 리용하여 720만US$를 주고 얼래쓰커땅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사들이고 후에는 하와이를 병합하여 미국령토를 50개 주로 만들었다.

하여 국가형성후 약 130년동안에 114차례의 각종 략탈전쟁으로 국가형성초기 70만㎢의 령토를 가졌던 미국은 19세기말까지 원래면적의 13배에 달하는 900만㎢나 되는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강탈하였다.

《독립》당시 13개 주를 의미한 붉은색과 흰색으로 된 13개의 줄과 병합하여 늘어난 총 50개의 별로 이루어진 성조기는 그대로 령토팽창과정에 발로된 미국의 호전성과 침략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성조기를 두고 《흰줄은 검은 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개골과 두개의 뼈를 가로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급속히 장성하기 시작한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남의 피의 대가로 황금소나기를 맞았으며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이 모든 력사적사실들은 미국의 령토팽창과정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피로 얼룩진 력사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생리로 삼고있는 미국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며 침략과 략탈을 떠난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침략과 략탈로 치부하려 하는것은 그 어느 제국주의나 공통된것이지만 그 기간에 있어서나 폭과 심도, 침략수법의 포악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미국을 릉가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이 침략과 전쟁, 살륙과 략탈을 생업으로 하는 나라이라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쁘게 련이어 벌려놓은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50~1953년 조선침략전쟁, 1961년 꾸바에 대한 침략과 까리브해위기, 1964~1973년 라오스침략, 1965년 도미니까인민들의 진보적투쟁에 대한 군사적진압, 1964~1975년 웰남침략전쟁, 1970년 캄보쟈침략, 1983년 그레네이더침공과 1989년 빠나마침공 등 미국의 군사적침략과 간섭, 국가테로행위를 모두 꼽자면 끝이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우리 인민에게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인디안의 시체우에 생겨난 미국의 범죄적정체를 다시한번 세계앞에 적라라하게 드러냈다.

미제침략군 8군사령관이였던 워커놈은 《유엔군》고용병들에게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떠벌였다.

살인명령을 받은 미제침략군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하여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 남반부에서 124만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시기 미국립문서보관소 등에서 비밀해제된 자료들에 의하면 미군은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을 집단사살하는 곳을 《칠면조사격장》으로 불렀으며 이러한 대량살륙만행을 직접 사진찍어 상부에 보고하군 하였다고 한다.

2005년 조선전쟁전문가인 미국 시카고종합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자기의 도서에서 트루맨대통령의 승인하에 맥아더가 조선과 중국접경지역을 중심으로 30~50개의 원자폭탄투하를 계획하고 핵탄두를 제거한 원자폭탄을 평양린근에 떨어뜨리며 원폭투하연습까지 했으며 북조선에 100만gal(갈론)의 나팜탄을 투하하고 20여개의 주요도시를 초토화하는 만행도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피에 주린 미제침략자들이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여겼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야수성과 포악성도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을 지키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로써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뽐내던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저들의 거듭되는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국제법과 전쟁규범을 공공연히 짓밟고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는 전대미문의 만행도 감행하였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은 전쟁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적규범이다.

웰남전쟁에서도 미국은 웰남의 무성한 열대산림과 전선들, 주민지대에 대한 화학전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하여 210만~480만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웰남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미제의 화학무기사용과 고엽제살포의 후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으며 나무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과 리권확보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정권이라면 동맹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무력침공을 통한 정변을 조작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1980년대말까지 40여년동안 미국은 무려 550여차례나 정변조작책동을 감행하였으며 이것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10여차의 정변을 조작한것으로 된다.

미국의 정변조작은 정의와 진보, 자주를 거세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저들에게 다시 예속시켜 그 지역에 대한 저들의 확고한 지배와 리권확보를 실현하는 목표에 복무하고있다.

빠나마와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공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1989년 빠나마운하를 가지고있는 자그마한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다.

빠나마라는 나라를 미국이 이 나라에 건설되는 운하의 운영권을 틀어쥘 목적으로 만들어냈고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이 현지인의 참가없이 미국인과 프랑스인사이에 체결되였으며 무력침공으로 체포한 주권국가 빠나마의 실권자가 미국에 끌려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언도받고 감옥생활을 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빠나마라는 국가를 조작해낼 당시 이 나라는 꼴롬비아의 한개 지역에 불과하였다.

1881년부터 프랑스에 의하여 시작된 빠나마운하공사가 1898년에 심각한 재정난으로 난관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은 꼴롬비아정부에 운하굴설권과 영구조차권을 양도할것을 강요하였으며 그것이 거절되자 1903년에 군함 《내쉬빌》호와 미해병대를 파견하여 그곳 총독을 살해하고 《독립국가》를 선포하였으며 친미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이것이 빠나마라는 나라가 생겨난 과정이다.

당시 체결된 제1차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은 이제 건설될 운하의 량쪽주변을 미국의 《영구조차지》로 한다는것이였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이 조약이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헤이와 운하대상건설을 담당한 성원중의 한사람인 프랑스기사 필리쁘사이에 체결되였고 여기에 빠나마인은 단 한명도 참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후 운하의 소유권과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1977년 9월 제2의 빠나마-미국운하조약이 체결되게 되였다.

미국은 이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1981년 7월 31일 빠나마대통령을 비행기폭파로 제거하였으며 1989년 12월 20일에는 이 나라에 대한 대규모공습과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나라를 페허로 만들고 이 나라의 실권자를 미국에 끌고가 빠나마에서 미국법률을 어기였다는 황당한 리유로 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언도하는 횡포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1983년 10월 25일 미국의 그레네이더침공은 세상사람들에게 《왜 미국이 그레네이더를 깔고앉았는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레네이더가 총면적이 345㎢, 인구가 8만명정도에 군대라고는 륙군 2, 000명정도이며 풍부한 원유나 지하자원, 또 값이 나갈만한 전략자원도 없고 공업이 발전되지 못하여 관광업이 나라의 명맥으로 되여있는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섬나라이기때문이다.

그러면 그레네이더침공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이 1983년 1월 10일 워싱톤에서 열린 전국실업가협회에서 한 연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처럼 니까라과, 엘 쌀바도르, 꼬스따 리까, 온두라스, 과떼말라 그리고 기타 까리브해지역 섬나라들에 공산정권이 서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는지 모르고있다. 중앙아메리카와 까리브해지역을 맑스주의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것은 미국의 번영을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고 말하였다.

그레네이더가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고 반제자주적인 정책들을 실시한것이 미국을 분노케하고 미국의 침공을 불러왔던것이다.

빠나마와 그레네이더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미국이 자기들의 리익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여기는 오만한 날강도국가임을 다시금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1999년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강도적인 《공포공습》을 개시한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무력간섭책동을 계속 벌려놓아 세인의 지탄을 받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모든 침략전쟁과 무력간섭책동은 철두철미 세계제패야망의 산물이며 체질화된 탐욕의 산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자멸을 재촉하는 미국

1990년대에 이전 쏘련의 붕괴와 함께 45년간 지속되여온 《랭전》이 종식되자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한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강한 미국》, 《강대한 유일초대국》으로서 이제는 세계를 마음먹은대로 쥐락펴락할수 있다는 허황한 망상에 빠져있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이라는것은 《힘》의 우세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전세계를 미국식, 서방식으로 만들어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기어이 실현하는것이다.

1861~1865년 남북전쟁을 겪은 후 숱한 침략전쟁을 벌리면서도 자기의 령토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미국시민들이 무리로 죽고 일대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당해본적 없었던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최대의 국가재난을 겪게 되였다.

2001년 9월 11일 4대의 려객기공격으로 미국의 《경제위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뉴욕의 세계무역쎈터 110층짜리 쌍둥이건물과 47층짜리 부속건물이 완전히 페허로 되고 워싱톤의 미국방성청사의 일부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망하는 특대형사건이 발생하였던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성과 월가의 뒤골방에 틀고앉은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9. 11사건이 《새 세기계획》에 환장이 된 저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져다주었기때문이였다.

9. 11사건을 기화로 미국은 《테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테로의 소굴》, 《테로지원국》이라는 감투를 제 마음대로 씌워놓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테로와의 전쟁》을 미친듯이 벌려놓았다.

결국 9. 11사건은 미국에 있어서 《테로》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더욱 로골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은 2001년 10월 방대한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개시하여 《반테로전》의 서막을 열어놓았으며 2003년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 2011년 대규모공습에 의한 리비아침략과 2015년 수리아전쟁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극도의 오만성과 일극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미국은 우세한 군사력과 《련합군》에 의거하여 보잘것없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정권을 손쉽게 붕괴시켜 《승리》를 선포하였으며 《반테로전》을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으로 확대하였다.

미국이 《대량살륙무기의 제거》라는 간판을 내들고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적공격을 감행하면서 《반테로전》의 포성을 계속 울린것은 명백히 테로와의 투쟁이 아니라 이 나라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독차지하고 이 지역을 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확립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미국의 광란적인 《반테로전》은 침략과 전쟁이야말로 미제국주의의 기본생존방식이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가테로행위도 서슴지 않는 테로의 왕초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사람들이며 2001년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라고 폭로하였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국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달라진것이 있다면 침략수법이 더욱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진것이다.

최근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저해가 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저들의 앞잡이들과 반정부세력들을 추동하여 무수한 《대리전쟁》판을 벌려놓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무장충돌과 전란이 계속되고 피난민사태가 그칠새 없게 하고있으며 이를 치부를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침략정책은 오늘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이 이미 《승리》를 선포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나라들에서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어 《반테로전》은 테로의 근절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테로의 란무장으로 만들고 미국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하였기때문이다.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공격으로 막을 올린 미국주도하의 《반테로전》은 이 나라에서 20년동안 지속되다가 지난해 미군철수로 막을 내리였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전쟁에는 1주일동안에 20억US$의 전쟁비용이 필요한데 이 전쟁을 20년동안 지속해왔으니 미국이 수조US$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반테로전》에 쏟아붓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하는 의문도 자연히 제기되였다.

하기에 미국내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수렁과도 같은 《반테로전》에서 미국이 발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을 하루빨리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자유》와 《번영》, 《발전》을 떠들며 《반테로전》을 일으켰지만 그

것이 가져다준것은 많은 인명피해와 고갈된 국가재정,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뿐이라는것이 명백해진것이다.

지금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세계의 《맏형》인 미국이 주인이 된 《새 세계》가 곧 발아래에 펼쳐질것이라고 하면서 《무쇠주먹》을 한번 더 내려치면 온 세계가 무릎걸음을 할것이라고 전쟁열을 계속 고취하고있다.

한갖 개꿈에 불과하다.

침략과 략탈, 전쟁을 일삼는자들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기때문이다.

힘으로 못할것이 없는것처럼 기고만장해하던 미국이 지금 이라크, 소말리아나 수단과 같은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들에서 벌려놓은 《테로와의 전쟁》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갖은 곤욕을 다 치르고있는것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에 만연되였던 《힘의 제국》에 대한 공포심이 야유와 조소로 바뀌고 미국의 《일극세계》를 배격하고 다극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몇년전 미국에서 《제국의 지배는 영원할수 없다. …미국의 지배도 조만간에 종말을 고할것이다.》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오는 장편기록영화가 제작, 방영된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자체내에서도 인정하고있는 미국지배의 종말, 이것은 21세기 《힘의 제국》의 종말을 선언하는 력사의 귀결이다.

＊ ＊ ＊

생겨날 때부터 무제한한 령토팽창야욕을 추구하며 이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미국은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 악의 총본산이다.

현실은 날강도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지난 기간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세계제패야망실현에 환장이 되여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결과 분쟁을 조작하고 부추기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이라는 침략적실체, 패권적실체가 존재하는 이 행성은 하루 한시각도 편안할 날이 없으며 진정한 평화와 안정에 대해 말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 세계의 평화와 안정,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6일
평양

나토 정상회의 폐막...우크라 안보 약속에 러시아 반발, 일본 연락사무소 설립 무산

[신화망 빌뉴스 7월13일] 이틀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나토는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4개국(AP4)과의 정상회동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진영대립을 시도하면서 회원국 내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나토 정상회의 이튿날, 나토 회원국 정상은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아태지역

4개국 정상과 회동을 가졌다. 이는 나토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AP4 정상을 초청한 것이다. 또 나토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제1회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 회의'를 열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요청을 받지 못한 것에 또다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주요 7개국(G7)과 EU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 폐막 전 ▷육·해·공 현대식 군사 장비 제공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지원▷정보 공유 ▷네트워크 방어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사법·경제 개혁과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11일 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 개막 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나토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시도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의 반대로 일본 연락사무소 설립 의제가 통과되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북대서양조직이고 일본은 북대서양국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신화통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우롱하는 범죄적인 사기협잡행위

최근 일본당국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성원에게 많은 돈을 찔러준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얼마전 한 소식통은 일본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 후꾸시마핵오염수처리기술실무조의 최종평가보고서초안을 사전에 입수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제기함으로써 보고서의 결론에 부정적영향을 주었다고 폭로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관리가 기구사무국 성원에게 100여만€를 주었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핵오염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사단은 여러 차례 핵오염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를 통해 해양방류가 안전하지 못하다는데 대해 인정하였었다.

말끝마다 핵오염수의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걸림돌이였다. 이로부터 간특한 일본것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성원을 매수하여 최종평가보고서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돈꾸레미를 들고나섰던것이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수상 기시다에게 최종보고서를 넘겨주었다고 한다.

아니나다를가 그가 기시다에게 넘겨준 최종보고서에는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일본의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된다.》고 밝혀져있었다.

인류를 기만하고 국제사회를 속이는 일본의 너절한 협잡행위와 그에 놀아나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비굴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측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양방류를 고집한다면 기필코 저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규탄을 받을것이며 대가를 치르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핵기술을 안전하고 믿음직하게 평화적으로 리용하도록 추동하는 국제기구이지 핵오염수가 해양환경과 생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실무조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이고 력사적인 검증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평양섬나라연단 사무국장도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핵오염수해양방류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등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처리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미전에 일본경제산업성은 증기배출방법과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법 등 핵오염수를 처리할수 있는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그러한 처리방법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바다에 방류하는것이야말로 원가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며 그 방법을 써야 일본자체의 오염위험도 최소화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핵오염수에 의한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리속만은 차리겠다는 심보이다.

국제사회는 몇푼의 돈이 아까와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놓고 모험을 하고있는 사무라이족속들의 잔악하고 치졸한 행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비굴한 처사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일본당국은 국내외의 정당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한사코 외면하고 끝끝내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인류를 반대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채무 규모 32조딸라 돌파

16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련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32조딸라를 돌파한 32조 390억딸라에 달했다.

이로써 미국 련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의 전망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올 1월, 미국 련방정부의 채무가 31조 4천억딸라이라는 상한선을 돌파하자 미국 량당은 디폴트(채무 불리행)를 피하기 위해 5월말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잠정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련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최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했다.

해당 법안은 련방정부 채무 한도 적용을 오는 2025년초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년도와 2025 회계년도의 지출을 제한한 것으로 미국이 채무 한도를 조정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103번째이다.

한편 미국 련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오는 2030년에 50조딸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화사



상식
changshi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전하는 승전비-북관대첩비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에 있는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침입한 왜적들을 쳐부시고 큰 승리를 거둔것을 기념하여 1708년에 세운 승전비이다.

북관이란 조선봉건왕조시기 함경도(오늘의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북부의 일부 지역)를 가리키는 말이며 대첩이란 《큰 승리》라는것을 의미한다.

비문은 서문과 본문으로 되여있다.

서문에서는 정문부의병대의 투쟁은 리순신의 한산도해전, 권률의 행주산성싸움, 리정암의 연안성싸움에 못지 않은것이라는것, 적들의 침략목적, 진출방향과 함께 함경도의 애국적인민들이 정문부를 대장으로 의병을 일으켜 역적들을 처단하고 왜적을 크게 격파한데 대해 밝히면서 비를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왜적들이 침략하자 이를 반대하여 의병들이 떨쳐일어나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북관땅이 평정되고 백성들이 다시 편안히 농사짓게 되였다는것과 비를 세워 그 승전사실을 후손만대에 전한다고 밝히였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력사유적을 략탈하고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반일감정을 말살



해버리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북관대첩비를 훔쳐가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있던 북관대첩비는 100년만에 다시 림명리에 원상대로 세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7(2008)년 5월 북관대첩비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와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오늘도 북관대첩비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전하는 승전비로, 일제의 죄악을 세상에 고발하는 증견물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유모아의 어원과 유래

유모아란 가벼운 풍자가 섞인 우스개말을 말한다.

유모아는 단순한 말재간이나 웃음을 자아내는 장난물이 아니다.

유쾌한 롱과 웃음속에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 웃음속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안겨주는것이 유모아이다.

유모아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일찍부터 널리 사용하여온 공통어의 하나이며 그 어원과 유래도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 말은 서유럽의 영어, 프랑스어, 도이췰란드어들에서 발음형태는 얼마 변하지 않고 그 의미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발전해왔다.

유모아는 원래 라틴어 《유모아》(humor)에서 기원된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발생된 후 영어를 비롯한 일부 유럽나라들의 생물학부문에서 인간의 체내에 흐르는 혈액, 체액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였다. 고대사람들은 인간의 체내에 흐르고있는 체액(혈액)을 4가지 류형으로 보면서 이 4가지 체액의 짜임새가 인간의 기질, 기분,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고 그것을 《유모아》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점차 전이되고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것이 인간의 행동, 언어, 문장에까지 확대되여 익살, 우스운 일, 비밀 등도 다 유모아로 되였다.

그래서 《유모아》란 말은 영국, 도이췰란드 등 유럽나라들에서 문학, 미학, 철학 등 여러가지 학술분야의 용어로 널리 사용되게 되였다.

여름철건강상식 몇가지

여름철은 기온이 올라가 몹시 무더운 계절이다.

공기습도가 높기때문에 땀을 통해 소금기와 영양분이 몸밖으로 빠지게 되므로 입맛이 없고 피로감과 무력감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발생할수 있는 질병들을 잘 알고 건강보호에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름철에는 일사병이나 식중독, 급성설사증,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것이 중요하다.

일사병에 걸리면 맥이 없고 나른하며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증세들이 나타난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험하다.

더운 날에 밖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걷는것은 삼가하여야 하며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양산이나 채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것이 좋다.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무더운 여름철에 흘리는 땀의 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볼 때 두배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면 생리적으로 찬물을 마시게 되는데 만일 단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계통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 찬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며 오이랭국이나 각종 화채 등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는것이 좋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잘 보관하지 못하여 식중독이나 설사증에 쉽게 걸리는 현상도 있게 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에는 게우고 배가 몹시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된다. 심하면 열이 나면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그 예방에 대한 위생선전을 잘하여 급양봉사부문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식료품을 다루는 모든 공정과 조리과정에 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도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게 보관조건을 잘 지켜야 하며 특히 고기와 물고기 등을 가지고 료리를 할 때에는 잘 익혀야 한다. 만일 음식물의 맛과 색갈, 냄새에서 이상한것이 느껴질 때에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에 걸릴수 있는 질병에는 말라리아도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하여 옮겨지는 급성질병인데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생명을 잃고있다고 한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는 6월-9월사이에 그 번식률이 가장 높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쑥을 태우거나 피부에 모기방지크림을 바르는것이 좋다.

여름철에 몸안의 장기들가운데서 제일 큰 부담을 받는것은 심장이다. 맥박이 빨라 지고 가슴이 활랑거리며 숨이 차고 답답하게 되는 등 일련의 심장부담증상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계절에 심장을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약초들과 음식들이 몸에 좋다.

실례로 찔광이나 오미자로 차를 만들어 리용하면 신경계통, 심장혈관계통 등의 기능을 높여주고 피로도 빨리 풀수 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부원장 김무남

삼복더위 잘 나려면? 건강관리꿀팁 소장하기!



올해의 삼복더위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올해 기록적인 고온날씨와 곧 다가오는 습하고 무더운40일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가? 삼복철에는 어떤 건강관리상식이 있을가?

★ 삼복철에 어떤 운동을 선택할 수 있을가?

어린이: 조깅, 줄넘기, 롱구, 라이딩(骑

行) 등
청소년: 수영, 건강체조 등 절주가 느린 야외운동
로인: 산책, 태극권, 슬로우댄스(慢舞) 등 강도가 약한 운동
★ 삼복철에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는?
오전과 저녁은 비교적 시원하기에 단련하기에 비교적 안전하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덥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 삼복철에는 얼마나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름철 운동시간은 너무 길지 않아야 하는바 매일 한시간 정도면 된다.
운동량은 피로하지 않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상쾌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삼복철 운동 후 어떻게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가?
소량으로 여러번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면 담염수 또는 염분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급하게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 삼복철 음식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단백질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기를 보양하고 음을 보양하는 음식이 적어서는 안된다.
례하면 참마, 대추, 계란, 우유, 꿀 등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배출하는 음식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례하면 제비콩(扁豆), 율무 등
★ 로인들은 삼복철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음식이 담백해야 한다.
→물을 소량으로 여러번 마셔야 한다.
→활동이 적당해야 한다.
→정서가 평온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로인은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견지해야 한다.
→혈압, 혈당 및 혈액지질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만약 심각한 불편함이 생기면 제때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민넷



여름방학 나들이할 때 이런 전염병 주의해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관광계획을 세운다. 동남아시아는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해외관광의 첫번째 선택지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기후와 달리 동남아시아와 같은 열대지역 국가에는 국내에서 보기드문 열대기후질병이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 반드시 안전에도 류의해야 한다.
류비저(类鼻疽)란 무엇인가?
토양병으로 알려진 류비저(Melioidosis)는 주로 그람음성류 비저균(전에는 슈도모나스로 불리움)에 의해 감염되는 열대기후질병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에 분포되여있다.
이는 오염된 물,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과 동물에게 전파된다. 림상증상에는 폐염, 패혈증 및 다양한 기관의 국소성 감염이 포함된다.
중국 류비저병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주로





동남연해지역이다. 극단기후, 장마 등 인소는 류비저병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자신이 류비저에 감염되였는지 어떻게 판단할가?

류비저의 잠복기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하루 내지 수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로출후 2~4주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페부감염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경미에서 심각한 괴사성 페염으로 나타난다. 발병은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흉막염성 흉통 또는 가슴답답함 및 전신 근육통이며 발열은 일반적으로 >39° C이다.

기침, 호흡곤난 라음(啰音)이 특징이고 가래에 피가 섞일 수 있다. 흉부 X선검사에서 종종 페 상엽에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결핵과 류사한 구멍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류비저 예방법

비저균이 널리 전파된 지역에서 오염된 토양이나 물과 접촉하면 감염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의 거주자와 관광자들은 로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 토양 및 고인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개방성 상처가 있는 사람과 당뇨병 또는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류비저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토양, 물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농업활동에 종사할 때 방호에 주의해야 한다. 수영장, 고인 물, 논, 진흙 및 기타 환경에 진입할 때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과 종아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부츠, 양말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인민넷







작가 조령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기에는 여러편의 계몽기가요의 가사들을 창작하였으며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에도 수많은 명작들을 내놓은 보기드문 재사인 작가 조령출은 1913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래이름은 조명암이고 령출이란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아명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자그마한 약방을 차려놓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한미한 고려의사였는데 그후 서울에 올라와 살다가 조령출이 9살나던 해 사망하였다. 짙은 가난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아들을 공부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쓰던 어머니는 세월을 저주하며 어린 자식을 돈 있는 남의 집에 양자로 들여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불우한 그 시절에 그는 없는 자가 당하는 천대와 멸시, 민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가슴에서 고패치는 눈물과 울분을 그대로 표현할수 있는 문학수업에 뜻을 두게 되였다.

문학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조령출의 처녀작은 1933년 신춘문예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된 가사《서울노래》이다.

한양성 옛 터전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한강물 푸른 줄기 오백년
앞남산 봉화불 꺼진지 오랩니다
…
잎트는 삼천리 꽃피는 삼천리
아시아의 바람아 서울의 잠을 깨라

가사는 비록 강대하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고 망국의 울분으로 몸부림치는 삼천리강산이지만 잎이 트고 꽃이 피는 새봄은 기어이 오리라고 하면서 마지막결구에서 《아시아의 바람아 서울의 잠을 깨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일본놈들의 비위에 거슬렸다. 간악한 왜놈들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가차없이 금곡령을 내리고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조령출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사창작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 빼앗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노예의 쇠사슬을 하루빨리 끊어버리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려는 희망과 락관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는 수많은 신민요가사들과 대중가요가사들을 써냈다.

가요《집없는 천사》, 《울며 헤진 부산항》, 《진주라 천리길》, 《꼴망태목동》, 《울산타령》, 《락화류수》 등의 가사와 서정시《북행렬차》는 조령출이 이 시기에 창작한 대표작들이다.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은 망국노의 슬픔과 울분에 모대기던 조령출에게도 따스한 봄빛을 안겨주었다.

해방의 기쁨과 부푼 가슴을 안고 동분서주하던 작가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조령출은 물밀듯이 흘러가는 인파속에 섞여 매일처럼 서울역에 나갔다.

아쉽게도 그이를 만나뵙지 못하고 가슴속에 허전한 마음을 안은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지만 이 과정에 작가는 **김일성**장군님을 흠모하고 그리는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잘 알게 되였다.

이런 때 작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작가는 드디여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연극을

창작할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욕망과 능력의 불일치가 작가를 괴롭혔다.

무엇보다 안타까운것은 자신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또 그이의 투쟁사적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것이였다.

간난신고끝에 북간도에서 왔다는 한 로인과 30대의 젊은이를 찾아냈다.

그들에게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활한 유격전법으로 왜놈들을 삼대쓸어버리듯 하신 이야기, 유격근거지에 있을 때 장군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던 이야기, 그이께서 류창한 중국말로 위만군포로들을 감화설복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사실, 장군님께서 대원들앞에서 조국해방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하신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작가는 상상할수 없는 창작적흥분에 빠졌으며 밤낮을 잊어가며 3막 4장으로 된 장막희곡 《독립군》을 완성하였다.

한편 진보적인 연극예술인들은 작가의 손에서 대본이 떨어지는대로 그것을 가져다 련습하여 빠른 시일안에 연극의 형상창조를 끝냈다.

8.15해방직후 남반부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무대우에 정중히 형상한 첫 작품인 연극 《독립군》은 서울동양극장에서 대성황리에 첫막을 올렸으며 그후 여러 지방들에서 상연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책동으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남조선각지에 수립되였던 인민위원회들이 강제해산되고 진보세력들은 무참히 탄압당하였으며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해빛한점 스며들지 않는 암흑의 땅으로 전변되는 남조선은 조령출에게 실망과 환멸만을 가져다줄 뿐이였다.

작가는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한생을 의탁할 태양의 품을 찾아가기로 용단을 내리였다.

그래서 1948년 8월 조령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 참가하는 남조선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여 평양으로 왔다.

오매불망 소원하던 태양의 품에 안긴 조령출은 환희와 랑만에 넘쳐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공화국에 들어온 이듬해에 그는 벌써 가극 《꽃신》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주체38(1949)년 12월 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이 가극을 보아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조령출을 비롯한 창조성원들을 몸소 만나 주시고 작품이 아주 좋다고, 동무들이 많이 노력했기때문에 성과가 많았다고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우리의 가극을 이런 방향으로, 민족적정취가 풍기도록 발전시키는것이 좋겠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처럼 그리고 흠모하던 만고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이렇게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온것만도 꿈같은데 그이께서 미흡한 점이 적지않은 자기의 작품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이 은정에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인가.

그후 작가는 어버이주석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창작행정사업의 중요한 직무에서 활동하면서 혁명적내용에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넘쳐나는 작품창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자 작가는 《조국보위의 노래》(1950년)를 창작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얼룩소야 어서 가자》(1951년)와 《압록강 2천리》(1952년)를 내놓았다.

전후에는 《건설의 노래》(1953년)와 《만경대의 노래》(1962년)를 비롯한 여러편의 가사와 시들을 창작하였다.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민요를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재창조할데 대한 어버이주석님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가는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요유산들을 시대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는 민요로 개작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

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작은 조령출이 창작한 민요 《모란봉》이다. 《모란봉》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 민요인 《창부타령》을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개작한 민요로서 예로부터 명승지로 소문난 모란봉과 나날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되여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이 노래를 들어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민요《모란봉》은 아름다운 선률을 가진 노래라고, 그런 노래를 많이 지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황금산의 백도라지》(도라지타령), 《법성포배노래》, 《양산도》 등은 작가가 해방전 비탄의 상징으로 된 가사들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새롭게 고친 노래들이다.

이밖에도 조령출은 《전우》(1951년), 《리순신장군》(1960년) 등을 비롯한 희곡들과 《콩쥐팥쥐》(1954년), 《선화공주》(1958년), 《바다의 처녀들》(1965년), 《금강산팔선녀》(1969년) 등의 가극대본들,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1962년)대본을 창작하였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 지던 1970년대이후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으로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사업을 진행하면서 극문학창작에서 훌륭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잊을수없는 주체82(1993)년 2월 12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친히 작가를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아, 조령출이라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이는 얼마인가, 장수하자면 락관적으로 살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수의 비결까지 가르치시였다.

이날 뜻깊은 오찬에서 작가는 어버이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지으신 송시의 운을 받들어 자기가 창작한 헌시《위대한 명절》을 읊어드리였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작가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 시를 자신께서 다시 보겠으니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였다.

조령출의 창작활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7(1968)년 6월 평양대극장에 몸소 나오시여 작가가 대본을 쓴 가극 《해빛을 안고》를 보아주시였다. 이날 작가를 몸가까이에 불러주신 그이께서는 가극의 형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조령출은 뜻밖의 물으심에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비록 자기가 《해빛을 안고》를 썼지만 가극의 형식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가극을 하나하나 분석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극을 만들면 현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우리의 가극예술을 발전시킬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송구스러움을 금치못하는

조령출과 재능있는 민요가수였던 부인 김관보



작가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자신과 함께 가극혁명을 해보자고 고무해주시고 많은 시간을 내시여 가극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혁명가극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아래에서》 등 수많은 가극창조사업에 조령출을 내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의 건강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시며 왜 요사이 보이지 않았는가, 어데 아픈데는 없는가, 조선생은 앓지 말아야 한다고 다정히 격려해주시며 그의 생일 일흔돐상을 마련해주시였고 어느해인가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삼가 올린 산삼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믿음의 품, 의리에 넘친 사랑의 품에 안겨 작가는 80고령을 눈앞에 둔 때에도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였다.

주체77(1988)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가 《피바다》식가극형식으로 새롭게 창작한 민족가극 《춘향전》을 보아주시고 사상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된 우리 식의 가극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문을 닫기 전에 창작한 작품은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이다.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의 마음, 절대불변의 신념을 민족적정서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진달래, 목란꽃, 참대에 비유하여 숭엄하게 노래하고있는 조령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령의 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형상한 희곡 《념원》을 구상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문을 닫은것은 1993년이였다.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몹시 애석해하시며 조선문학창작사 작가 조령출동무가 오늘 사망하였다고, 그가 앓지 않았으면 좀 더 살아있을수 있었겠는데 참 안되였다고,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본것이 영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경희극《한마음 한모습으로》를 볼 때였다고 추억하시면서 작가의 사망에 대한 부고를 《로동신문》을 비롯한 중앙급신문들에 다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또한 고인의 령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도록 하시고 작가가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유해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떠나간 전사를 잊지 못해하며 영생의 삶을 빛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이 없었다.

주체84(1995)년 5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 조령출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5대혁명가극을 만들때 조령출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기본축이 되여 가극대본을 잘 썼다고 말씀하시였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지 16년이 되는 해인 2009년 어느날 새롭게 형상창조한 가극 《홍루몽》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작가를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조령출선생은 확실히 대문호라고, 1960년대에 창작한 가극들의 대본은 거의다 그가 썼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새 세기에 재창조된 가극 《홍루몽》을 다시 보니 조령출선생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그는 우리 사람들은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놀랄만치 각색을 잘하였다, 조령출선생이 대본과 가사를 참 잘 썼다, 그는 보기 드문 재사이며 훌륭한 작가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최상최대의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망국의 한을 품고 《집없는 천사》를 노래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조령출은 이렇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여 극적인 인생전환을 할수있었으며 귀중한 민족음악유산인 계몽기가요와 주체시대의 명곡들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산수도



생각에 잠겨

15세기 문인화가 강희안 (1417 ~ 1464)

강희안은 직업적인 화가가 아니라 벼슬을 한 사람이였으나 그림과 글씨에 하도 능하여 우리 나라 문인화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사람으로 전해지고있다.

당시 량반사대부들속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최고표현은 이른 바 《3절》 (시,서,화)였다.

강희안은 바로 이러한 품격과 재능을 갖춘 인물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강희안은 량반출신의 세계관적바탕과 높은 관료의 생활적환경으로 하여 근로인민의 다양한 생활과 의의있는 대상들을 자기 화폭에 담아내지못하였다. 주제내용선택에서 표현된 강희안의 이러한 화풍은 당시 첨예한 현실생활을 외면하고 강이나 호수가 있는 산촌에 숨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한가로이 살아가는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한 문인량반들의 관점을 반영한것이다.

강희안은 현실에 대한 관조적이고 보수적인 태도, 회화의 사회적기능에 대한 그릇된 견해 등 자체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인한 문인화적요소를 가지고있었으나 리조초기 우리 나라 회화발전에 좋은 경험을 남기였다.

문인화
봉건시대에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봉건량반들이나 선비들 같은 문인들이 먹으로 그린 그림.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
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